國統 74－3－51

20

在日僑胞統一敎育政策方案

1974. 12.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下半期 学術用役에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12.

연구기관 : 한국외국어대학

연구책임자 : 이 강 혁

目　　次

第一章　序　論 …………………………………………… 3

第二章　在日僑胞의　社會的・構造的　特質 ……………… 11

第三章　在日僑胞의　教育의　現況과　朝總聯　共産教育実態 ………… 29

第四章　在日僑胞　教育의　問題点과　政策上　問題点 ………… 49

第五章　在日僑胞의　教育에　対한　教育奉仕者의　意見 ………… 71

第六章　結　論 …………………………………………… 99

第一章 序　　論

第一章　序　論

現在 日本에 永住하고 있는 韓人僑胞의 대다수는 1910년의 韓日合併으로 인하여 나라를 잃고 36년간 이른바 日本臣民으로서 日本国의 被支配少民族으로 転落한 韓民族 가운데 植民地統治下의 經済的 重圧속에서 삶을 개척하기 위하여 異域 日本으로 移住했거나 戦争의 人的資源으로 徵用 徵兵등의 형식으로 日本地域에 動員된 사람들과 그 子孫들로서 終戦후 祖国의 光復을 맞으면서도 그곳의 묵은 生活基盤에 얽매여 이제는 民族意識마저 희박해진 2~3世와 함께 어쩔 수 없이 그곳에 定着해 있지 않을 수 없는 기구한 運命을 지닌 사람들이다.

한국사람이 그祖上의 代로부터 고국을 등지고 日本, 滿州 또는 시베리아 地域등으로 排出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歷史는 바로 韓国의 日帝植民政策의 社会的 經済的인 基盤을 굳히기 위하여 실시된 이른바 近代的 土地所有制度의 확립을 위한 土地調査事業의 強行으로 因해서 韓国의 農村秩序는 파괴되고 동시에 韓国農民이 没落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전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在日僑胞의 形成은 바로 이와같은 旧日本帝国主義의 植民政策의 所産으로서 그 역사의 一面을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旧朝鮮総督府의 이른바 武断統治로 인한 이같은 韓国 農民들의 労動者群으로서 国外排出現象은 1920년代의 이른바 文化統治 아래에서도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였으며 1930年代에 이르러서는 日

本軍国主義의 中国大陸侵略을 위한 韓半島基地化政策이 노골적으로 展開되고 또한 第二次大戦이 발발함에 따라 그 絶頂에 달하였던 것이다. 中・日事変이 勃発한지 2년이 지난 1939년에 朝鮮総督府는 이른바 国民動員計劃을 세웠으며 1940년에는 朝鮮職業紹介令을 実施하여 韓国人 労動力의 流出을 위한 적극적인 方策을 取했던 것이다. 더욱이 1942년에는 朝鮮徵用 44年에는 徵兵令을 実施하여 強制的으로 韓人青壮年들에 対한 徵発을 敢行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第2次大戦中에 徵用 徵兵 또는 学兵등으로 動員된 韓人의 数는 約 200萬에 이르렀으며 그中에서도 日本地域으로 送行된 人員은 822,111名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終戦当時 日本에 居住하고 있었던 韓人의 総数는 220~240萬名에 達한다고 추산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在日僑胞의 形成史는 日帝植民統治에 의한 受難者로서의 民族的 悲哀의 歴史이었다. 日本国의 敗戦과 同時에 이룩된 光復도 日本社会에 남겨진 僑胞들의 새로운 不安과 生活苦, 그리고 그들에게 加해진 抑圧과 差別을 불식하지는 못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終戦이후 4半世紀가 지난 오늘날 2,3世가 70%의 比率을 찾이하게 된 在日僑胞는 날이 갈수록 日本社会에의 適応 同化의 경향을 더 해가고 있는 것이 事実이다.

経済的 社会的 地位를 보면 在日僑胞의 社会生活에 있어서의 民族差別의 実態 및 僑胞(특히 2~3世)의 民族的 意識構造의 脆弱性과 同化傾向의 現象을 보기로 한다.

在日韓国人의 絶対多数는 현재도 그職業条件에 있어서 日本社会의 底辺에서 呻吟하며 경제적으로 不安定한 상태에 놓여 있다. 終戦後 中小企業者로서의 基盤을 닦은 少数者를 除外하면 대다수의 僑胞가 失業 또는 潜在的 失業状態에 있다고 할 수 있다. 日本法務省의 1964年度 在留外国人統計에 依하면 僑胞가운데 75.7%가 無職者 就業者가운데도 5%가 단순 労動者 10.8%가 技術従事者로 되어 있다.

이와같은 就業現況과 職業分類는 在日僑胞가 日本의 企業으로 부터 거의 封鎖되고 있다는 것을 実証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就職에 있어서의 民族差別의 実例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으며 正規의 大学을 우수한 成績으로 卒業하여 所定의 選抜試験에 合格하고서도 韓国人(表面上으로는 外国人)이라는 이유 하나로 入社가 拒否된 事例도 얼마든지 있다고 한다. 日本社会에서는 심한 労動力 不足과 그것으로 인한 労動条件의 改善向上이 一般化되고 있는 現象 아래에서 僑胞의 大多数가 失業者이거나 아니면 単純労動者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볼때 日本社会에 있어서의 韓人僑胞는 就業 就学을 비롯한 모든 分野에 있어서 公然히 差別待遇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本質的으로 日本政府의 一貫된 韓民族排他政策에 起因하는 것이다.

終戦후 本国으로 부터 떨어져 살고 있는 在日僑胞 特히 2~3世는 점차 日本社会에의 定着 適応 同化의 길을 걸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어떤의미에 있어서 歴史的 社会的 心理

的 実在的 見地에서 自然스러운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同化傾向을 造成하고 있는 社会的 政治的 要因을 살펴보면

① 僑胞社会内部에 있어서 앞서 본바와 같이 2～3世가 全体에 있어서 차지하는 比率이 約 7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그 비율의 増加가 豫想되는 가운데 그들의 民族的 내지 国民的意識의 変化 희박이 그대로 同化의 경향을 反映해 주는 것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그리고 僑胞가 그 経済的 基盤을 전적으로 日本社会에 두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특히 젊은 世代의 僑胞가 祖国과 民族으로 부터 距離感 또는 疎外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事実은 自然의 生理로서 그가 出生하여 자라온 그곳에의 適応性 또는 親近性과 表裏的으로 作用하여 日本에의 同化를 더욱 助長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現実的으로 日本社会에 適応해 가는 것이 교포에게 주어진 운명의 길이라고 보는 소박한 思考가 많은 수의 2～3世의 意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在日僑胞의 意識構造에 있어서의 同化傾向에 대해서 民族主体的 観点에서 그것에 対한 本質的 検討가 要請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同化傾向에 対한 이른바 民族教育의 問題 一世의 民族性과 家庭教育의 문제 組織的인 民族性確立을 위한 事業등 근본적 課題가 提起되고 있다. 이와같은 과제는 물론 少数民族으로서의 在日僑胞가 안고 있는 属性的 또는 本質的 문제이지만 그것은 民族主義的 感傷論에서가 아니라 合理的인 科学的 方法論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거기에는 日本社会와

特殊한 紐帯関係 ── 말하자면 異質的 類似性 ── 을 지니고 있는 僑胞에게 주어진 스스로의 限界가 있다는 점에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② 日本政府의 在日韓人에 対한 排他政策을 바탕으로 하는 差別과 部分的 同化政策이 同化를 他律的으로 促進하는 要素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서 論及한 바와 같이 日本国政府는 철저하게 韓人系少数者集団의 造成을 排除하는 政策아래 僑胞문제를 단순한 国内治安 문제로 다루어 追放과 同化의 両者択一的 政策으로 対処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마땅치 않는 者는 이를 追放하고 自国에 利로울 存在로 判断되는 者는 이를 同化(帰化)케 하므로써 日本社会内에서 異民族(特히 比率이 높은 韓民族)의 集団形成을 말살해 가려는 것이다.

同化를 위한 日本政府의 具体的 政策으로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民族教育에 対한 抑圧이다. 現在 在日 韓人学校는 ── 脚註에서 보는 바와 같이 白頭学院을 除外하고는 ── 日本国学校教育法이 規程하는 正規「学校」의 資格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上級学校(특히 大学)에의 進学의 길이 막혀 있다. 이것은 在日韓人에 対하여 日本教育法에 의한 学校教育을 通해서 日本式 教育을 強要하기 위한 方策의 具現이라고 할 수 있다.

③ 日本人의 在日韓人에 対한 差別意識(및 그들 스스로의 優越意識)과 僑胞들 스스로의 劣等意識의 加重作用이다.

僑胞들의 劣等意識은 본 바와 같이 日本国에의 韓国의 併合을 前後하여 나라를 잃고 没落해 버린 韓国農民의 대부분이 労動者로서

日本에 排出됐다는 사실과 戰爭의 人的資源으로 強制動員된 韓人의 많은 数가 終戰後에도 어쩔 수 없이 그곳에 残留하고 있다는 事実에서 그発生原因의 일단을 이해할 수 있으며 여기에다 日本이 韓人에 対해서 갖고 있는 固疾的 偏見이 그 劣等意識을 더욱 助長하는 原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④ 本国政府의 在日僑胞에 対한 保護政策의 貧困과 消極性 그리고 그것의 現実的 妥当性의 欠如로 그 同化傾向을 助長하는 消極的 要因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⑤ 끝으로 僑胞社会의 分派내지 分極化 現象이다. 在日僑胞社会가 経済的으로는 少数의 富裕層과 대다수의 底辺層으로 政治的으로는 이른바 民団系와 朝総聯系間의 対決의 様状으로 또한 民団系内에서도 指導層内部의 対立과 갈등 그리고 그들과 일반 庶民層으로 分裂되어 있는 現象形態는 오늘날 僑胞社会의 団合과 統一을 沮害하고 特히 젊은 世代의 교포는 動揺케 하는 한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第二章　在日僑胞의 社會的 構造的特質

第二章 在日僑胞의 社會的 構造的 特質

在日僑胞는 그 居住의 地域的 条件과 生活環境 그리고 그 社会形成의 歷史的 背景과 過程등이 特異함에 基因하여 여러가지 社会的 心理的 特質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敎育的 見地에서 問題삼을 만한 몇가지를 抽出하여 考察한다.

民族的 劣等意識

祖国의 堂堂한 主権国家로 光復 独立된지 20餘年이 지났고 一世紀前까지만 하더라도 日本에 文化를 伝承해준 悠久한 歷史를 지닌 民族의 一員임에도 不拘하고 尙今도 在日僑胞에게는 (一世와 二三世를 莫論하고) 問題삼아야 할 程度의 民族的 劣等意識에 支配받고 있는 顕著한 傾向(個人差는 있으나)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늘날 在日僑胞가 안고 있는 問題의 殆半은 이 民族的 劣等意識의 表現들이요 이것에서 緣由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民族教育으로서의 在日僑胞教育도 곧 民族的 劣等意識을 構成하는 教育活動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民族的 劣等意識 이것이 在日僑胞의 社会心理的인 固疾이라고 하겠거니와 前節의 「在日僑胞 社会의 生成에서 論及한 過去의 背景(生成의 第Ⅰ節二段階 期間)이라든가 또는 韓国과 日本의 経済的 隔差나 日常的 生活文化水準의 差異에서만 그 要因을 찾을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日本 및 日本人의 対 韓国(韓国人)蔑視観과 갖가지 不合理한 差別待遇에 그 積極的인 要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民族的 劣等意識은 在日僑胞 特히 成長期에 있는 그들 二世三世들의 健全하게 正常한 性格発達을 萎縮.阻害하는 主観的(自体)要因이라고 하겠는데 卑屈 自己隠蔽 現実逃避등 防禦的인 自虐性行為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憎悪 反抗 破壊등의 攻撃的인 加虐性行為로도 露呈됨을 在日僑胞의 여러 사회적 生活 断面에서 発見할 수 있는 것이다.

在日僑胞 社会에 蔓延 浸透되어 있는 이 民族的 劣等意識은 結局 民族的 主体意識의 缺如 乃至는 貧弱이라는 것과 表裏関係에 있는 것이며 이 主体的 意識은 먼저 在日僑胞 스스로의 疾患인 民族的 劣等意識을 意識하는데서 부터 発動되는 것이다 할 터인데 朝総聯 共産主義勢力은 이를 階級意識으로 代替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民族的 敵対意識 憎悪感情을 煽動하는 일을 民族教育이라는 이름으로 粉飾 偽装하여 強行하여 왔으며 또한 하고 있다. 여기에 在日僑胞의 民族的 劣等意識 문제는 単純한 教育的 문제의 対象으로서만 아니라 한층 더 複雑多端한 深刻한 思想性과 政治性을 띤 문제로 対処하지 않을 수 없는 理由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社会構造上 脆弱性

鶏卵의 形態와 같이 中間(中産)層이 膨張된 形態의 社会構造라야 安定되고 健実한 社会라고 할 수 있겠으나 在日僑胞의 社会構造는

그 生成의 歷史的 背景과 過程에 基因하였음인지 中間(中産)階層의 形成없이 上位層과 下位層만으로 構成된 特異한 社会的 体質을 갖고 있음을 본다.

在日僑胞 社会에 中間(中産)階層이 形成될 수 없었던 主因을 살피자면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8年(在日僑胞 社会形成의 第一段階末)의 在日僑胞 職業 状況이 大戰終了 後의 混乱과 激動 期間을 걸쳐 1960年代 以後에 까지 그대로 持続되어 왔다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表一　　1938年의 在日韓国人 職業状況

職業	人口	%	職業	人口	%
労務者	322,946	40.3	以上 小計	414,854	51.9
農業(小作)및 漁業	5,199	0.6	無職	294,413	36.8
商業	60,674	7.8	就学児童및 留学生	88,859	11.1
接客業	4,589	0.6	在監者	1,739	0.2
有識(知)的職業	1,920	0.2	以上 小計	90,598	11.3
其他 有職業者	19,526	7.4	合計(僑胞研究)	799,856	100.0

資料;(日本 内務省 警保 調査報).

即 오늘날의 (1970年代에 들어선) 在日僑胞 社会에서도 社会 下位層의 人口가 奇形的으로 多数를 占하고 있음이 発見되는바 社会構造 面에서는 아무런 変化와 進展을 찾아 볼 수 없다는 点이다.

表로 보아 当時의 在日僑胞 社会実情으로 보아 中産層으로 看做할

만한 職業群은 農業 商業 接客業 및 有識(知)的 職業 程度라고 하겠는데 여기에 其他有職業者를 合算하드라도 全体 在日僑胞人口의 11.6에 不拘하며 職業群에 包含한 性質이 못되는 就学児童 및 留学生数를 이에 加算해 보드라도 22.7%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下位層 職業으로 認定할 수 밖에 없는 労務者가 40.3%이나 되고 그위에 無職이 36.8%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때 위에서 中産層으로 看做할만한 職業群으로 指摘한 職業 人口도 其実은 当時(1938)의 在日僑胞社会에서는 上位層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음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오늘날(70년대)에 있어서도 在日僑胞의 社会職業人口 構成은 決코 正常的인 것이 못됨을 알 수 있는 일이다.

即 最近年間의 在日僑胞(一時滯留者를 除外한)의 職業 分布現況에 있어서(設使 駐大阪総領事舘 管内 地域分이 包含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드라도) 뚜렷한 職業名을 附하기가 困難한 其他에 属하는 人口 比率이 69年度와 71年度가 57%와 61%로 集計 分析되거니와 이것은 곧 経済生活水準이 보잘것 없으리만큼 낮은 階層이 全体僑胞人口의 過半을 차지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解釈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이다.

그러나 肯定的(希望的)인 特異点은 오늘날의 在日僑胞 社会構造에 있어 第1次産業에 従事하는 職業人口가 全体의 1.8%(農林業, 漁業 및 鉱業)第二次産業의 그것이 全体의 10.8%(製造業과 建設業을 合하여 残餘 87.4%가 第三次産業部門에 従事하는 것으로 나

타나 있는데 이것은 表1에서의 1938年의 産業部門別 職業人口 分布가 指向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1938년부터 30年이라는 時間이 経過했고 在日僑胞가 社会的 生成에 있어 最終的 安定期를 맞이했던 1953~55年代에서 近 20年이 흘러서 1970年代에 들어선 오늘날의 在日僑胞 社会에 第一次 및 第二次 産業部門의 職業人口가 12.6%라는 比率을 차지하게 되었다 함은 全盤的인 傾向으로 보아 在日僑胞의 安定性이 높아져 가지 않음을 認定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在日僑胞社会 全般의 定着性(安定性) 漸高의 傾向을 認定할 만한 것이다 하더라도 그 社会構造上의 中産(中間)階層의 脆弱相은 1938年과 1970年代 사이에 本質的인 発展的 変化를 発見할 수 없음은 表로 파악되리라 본다.

이 中産階層의 未形成 또는 微弱문제는 僑胞社会의 対内的 団合不足과 対外的 脆弱이라는 傾向的 特性을 結果짓는 要因의 하나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오늘날의 在日僑胞 社会에서는 上位階層인 僑胞 企業主가 同胞雇傭을 忌避하고 下位階層인 僑胞 労務者 亦是 同胞 企業体를 外面하고 있는 딱한 現象이 露呈되고 있어서와 堅実한 中間(中産)階層의 育成 発展없이는 이러한 僑胞社会 内部의 不信反睦이 愛国心과 同胞愛의 強調만으로 解消될 수 없음은 勿論이려니와 僑胞 社会 自体에 依한 継続的인 財力의 投入을 必要로 하

는 在日僑胞 教育施設의 創設과 그維持 発展도 期待하기 어렵다 함은 明若観火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在日僑胞 社会의 構造上의 缺陥(奇形性)과 이것에서 派生되는 갖가지 社会的 病弊 脆弱은 在日僑胞教育의 発展을 沮害하는 要因인 同時에 그것을 必要로 하는 理由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가지 添記할 것은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在日僑胞의 民族資本育成 特히 中小企業의 育成을 위한 僑胞 自身들의 活動이 刮目할 程度로 活潑化되었으며 이를 위한 韓国政府의 財政支援도 始作된 바 있어 (在日僑胞 韓国人信用組合을 通한 在日僑胞 中小企業育成資金으로 1961年度 200萬弗, 66年度 100萬弗) 앞으로 僑胞中小企業者群의 成長 発展이 期待될만 하다는 점이다.

在日韓国人信用組合의 組織力과 그財政力의 拡大가 在日僑胞 中小企業者群의 育成 強化에 直結된다면 이것이 곧 在日僑胞 社会의 構造的 缺陥을 是正케할 수 있을 것이고 健実하고 바람직한 在日僑胞社会에로의 推進力이 될 것이므로 政府의 在日僑胞政策에 있어 이 韓国人信用組合의 支援 指導를 通한 在日僑胞中小企業育成策과 教育組織(韓国学校와 教育文化센터)을 育成 強化하는 文教施策과는 마치 수레(車)의 両輪과 같은 密接한 相互関係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 社会構造上의 中間階層의 脆弱相은 階級闘争을 窮極的目標로 하는 共産主義勢力의 絶好의 標的이 된다는 점에서 또한 큰

問題性을 지니고 있다. 朝総聯 共産主義勢力에서는 民族教育을 標榜하는 그들의 共産教育組織을 亦是 그들 独自의 中小企業育成体인 所謂 朝鮮人信用組合 組織과 並行시켜 一糸不乱한 指揮 系統下에 두어 両者의 相互補完作用을 調整 発揮시키고 있거니와 이것이 在日僑胞社会의 構造的 正常化 문제를 研究 推進하는데 있어 또한 考慮되어야 할 主要한 問題点의 하나이다.

表2는 民団側의 韓国人信用組合과 朝鮮人信用組合의 金融機関으로서의 実績実力을 比較해본 것이다.

韓国信組가 위에서 論及한 政府의 育成資金을 支援받기 前(1958年)과 支援을 받은 後(1968年)의 実力間에 많은 発展差를 보여주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同一期間(1958~68)에 있어 朝総聯系 信用組合도 刮目할 勢力増大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때 特히 1968年度 現在 統計이기는 하지만 10年을 두고 競争結果에 있어서 尙今도 民団系 韓国信用組가 朝総聯系 조선信組에 落後하고 있음을 発見할때 위에서 指摘한 問題点은 더욱 緊迫한 問題性을 示唆하는 것으로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다.

結局 이 在日僑胞 社会의 構造的 缺陥 中間(中産)層의 脆弱相 문제도 餘他의 모든 問題가 그러하듯 在日僑胞社会가 直接的으로 또한 可視的으로 直面하고 있는 朝総聯 勢力과의 政治思想的 対決과 이에서 勝利를 거둬야 할 至上課題에 直結되는 問題로 取扱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높은 次元에서의 問題性을 内包하고 있다고 보아야

옳은 것이다.

表二 在日僑胞企業人의 金融機関実績一覧 (1958 ～ 1968 年)

※ 韓信協＝韓国人信用組合協会 (民団系)

朝信協＝朝鮮人信用組合協会 (朝総聯系)

単位 ; 예금 , 出資 , 貸出의 金額은 単位 1,000 원임

年 度	預金高		出資高		貸出高		組合数		組合員数	
調査年月	韓信協	朝信協	韓信協	朝信協	韓信協	朝信協	韓信協	朝信協	韓信協	朝信協
1958. 10	2,712,562	7,610,447	226,620	213,654	2,106,644	1,921,970	9	11	6,060	18,679
1968. 10	50,507,529	66,571,883	1,806,983	3,067,843	44,117,618	64,224,556	31	未詳	42,782	未詳

在日僑胞의 同化 傾向

1950 年을 고비로 하여 이미 二世의 時代에 들어섰으며 1960 年代인 現在는 三世의 時代라고 할 수 있을 程度이다.

在日僑胞 60 萬의 韓国人이 総体的으로 극히 높은 同化 (日本人) 水準에 있음이 分明하다. 이 状態로 二世의 時代에서 三世의 時代로 即 1980 ～ 90 年에 이르면 韓国人은 모두 根本的인 対策을 取하지 않는 限 特히 政治的으로 民族教育面에서 強力한 対策을 講究하지 않는 限 完全히 同化하여 韓国人으로서의 모습을 남김없이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上掲 豫言은 1960 年에 発行된 李瑜煥著 在日韓国人 50 年史의

結論最後尾에 記録된 것으로서 在日僑胞의 母国語 喪失 傾向과 一世 및 二世의 社会心理的인 諸特性을 分析 綜合한 結果로 나려진 心証的인 豫言에 不過하다. 그러나 그것은 在日僑胞 自身들은 勿論 日本旅行을 経験한 本国의 識者層이나 関心을 갖고 観察하는 日本人 識者들의 共通된 印象과 傾向的인 認識에서도 肯定될만한 豫言이라고 하겠다.

前掲 李瑜煥은 1968年10月 在日大韓民国 居留民団 東京都本部 発行의 在日韓国人의 動向이라는 冊子의 在日韓国人의 同化傾向과 그 水準章에서 將來를 豫言한다는 것은 極히 危險한 일이다. 그러나 科学的으로 過去와 現在를 分析함으로써 未來에의 動向을 理論的으로 推測하는 것은 可能한 일이며 또한 將來를 洞察하는 것은 科学의 한 使命이기도 하다 라고 前提하고서 10年前의 堤論(豫言)이 不幸하게도 挙皆의 傾向에 있어 誤謬로 指摘될 수 없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 現時点에서의 民団系 同胞의 実情이다 라는 論述이다.

即 在日僑胞 一世들의 同化曲線은 渡日해서 10年쯤 사이에 急上上昇을 보이나 老年期에는 도리혀 還元作用으로 下降線을 보이게 되며 二世들은 小学校 適齡期에 第一次로 思春期와 結婚期 또는 就職期에 第二次로 民族意識을 보여주며 三世들은 이에 二世가 높은 水準의 同化傾向에 있는 탓으로 二世의 第二次 意識期에 該当하는 것이 若干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딸을 두고온 故郷山川에의 郷愁의 情을 가진 一世와 그렇지 못한 二, 三世와의 사이에 断層

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도 하겠다.

上揭에서와 같은 世代別의 同化曲線을 個人別 또는 家庭別 差異를 複合하는 것이겠으나 理論上에서만 아니라 現実的인 諸現象에서도 肯定되는 傾向的 事実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同化傾向에서의 또하나의 特徵은 韓国政府의 支援 擁護를 받는 世称 民団系의 僑胞와 이에 反対하는 立場에 서는, 世称 共産主義 朝総聯系 僑胞의 同化傾向 사이에는 重要한 差異点이 보인다는 点이다.

이에 関해서 李瑜煥은 現実的인 諸事業과 傾向을 分析하여 理論的으로 整理한 끝에 民団系의 그것은 等比級数的인 速度의 同化이고 朝総聯系의 그것은 等差級数的인 速度인 同化라고 説明하여 그 対比에 있어서 民団系 僑胞의 同化는 朝総聯系의 그것보다 50年(一世代 期間은 25年으로 잡아) 앞질러 進展되는 것으로 計算하고 있다. (在日韓国人의 動向 参照)

다음은 결국 民団系 僑胞가 朝総聯系 僑胞보다 50年이나 빨리 同化(日本化)한다는 이 説은 朝総聯系가 民団系보다 훨씬 強力한 民族教育的 手段을 쓰고 特히 成人層에 対한 民族的 文盲退治教育의 成果를 그들 朝総聯 勢力에 거둔것이 그 主된 原因 理由가 있는 것으로 李瑜煥은 指摘하고 있다.

換言하면 民団系의 同化方向을 下向으로 転換시키자면 어떤 方法이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民団運動의 本質이며 모든 것이 여기에 이어지는 문제가 아닐까! 라고 結論으로써 李瑜煥은 在日僑胞의 同化(日本化)문제에 結付되는 民族教育의 課題를 示

唆하고 있거니와 이에 対하여 民団의 組織成員은 勿論 民団을 指導支援하는 韓国政府의 立場에서는 異論을 挿入할 餘地가 없는 일이라 하겠다.

한편 在日僑胞의 同化 傾向을 日常의 生活様式에서나 思考方式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社会現象 面에서의 가장 具体的인 様相으로는 婚姻関係와 歸化의 状況으로 例証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在日僑胞는 確実히 日本的인 것으로 同化傾向에 있으며 이는 그 社会的 特質중 가장 현저한 것으로 認証될 만도 하다. 其実在日僑胞 스스로의 自嘲的 俗된 常用語로서 半쪽발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자주 들릴 程度로 그것은 一般化된 常識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곰곰히 생각하고 깊이 洞察할때 在日僑胞의 特히 民団系 僑胞의 이 줄달음치는듯 日本式 傾向앞에는 얼핏보아 대수롭지 않으나 分明하게 存在하고 作用하는 어떤 断層이 가로놓여 있음을 알아 차릴 수 있는 일이다.

在日僑胞의 日本化 문제는 在日僑胞라고 하는 特異한 社会가 生成한 그 歴史的 背景부터 파헤쳐 보지 않고서는 그 眞相과 全貌를 理解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日本人의 韓国観(韓僑観)이나 日本国의 韓僑政策과도 密接하게 相関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한가지 明瞭宛然한 事実을 日本化한 것의 憂慮点 日本的인 것으로의 同化傾向 自体에 있다기 보다는 在日僑胞가 完全하게 日本化될 수 없는 与件下에서 即 半日本人的 状況에 머무르게 마련이면서 겪어야 할 精神的 心理的 苦痛과 이에서 縁由되는 不完全하고

歪曲되기 쉬운 性格発達에 있다는 点이다.

在日僑胞의 日本化 傾向앞에 가로놓아 그 断層이란 바로 完全하게 日本化될 수 없는 与件이라는 客観的인 것과 不完全하고 歪曲되기 쉬운 性格이라는 主観性의 것 속에 存在하는 그것이다. 長僅을 무릅쓰고 한가지만 事例를 引用해 보면

그의 이름은 C라 匿名해둔다. 그는 日本国 岡山에서 戦前부터 居住하는 在日僑胞로서 1971年 現在로 58年 年齢이며 慶南의 山間奥地에서 태어났다. 그는 해방직후의 혼란시 어떤 행운을 맞아 若干의 財貨를 得했는데 左翼系 동포의 횡포에 義憤을 不禁 民団의 組織活動에 뛰어들었다. 그는 備蓄한 財産은 바닥이 나기 前에 헐값인 土地 200余坪을 사두었다. 10年의 민단活動 끝에 赤手空拳이 되어 生計再建을 위해 組織의 一線에서 물러나 돈벌이에 나섰으나 이에 秩序가 잡힌지 오래고 놀랍도록 経済成長한 日本社会나 그에게 손쉬운 돈벌이 길을 許諾하지 않았다.

1966年의 어느날 그는 乾坤一擲와 決意를 굳히고 唯一한 財産이며 이미 数十倍의 地価로 騰貴한 그 200坪의 土地를 担保로 하여 建築資金을 얻어 가지고 그 垈地에 호텔建設을 計劃하였다. 知人을 내세워 日本의 銀行에 交渉하고 融資를 申請했다. 銀行에서는 그 垈地가 차지하는 立地条件이 有利한 것이어서 事業計劃의 有望함을 認定했음인지 融資申請書를 接受하고서 좀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 相当히 긴 期日을 기다렸다. 하지만 좀체로 融資決定은 오지를 않았다. 交渉을 마쳤든 知人을 通하여 促求해봤으나 別無進展이었다.

마침내 그는 拒絶을 宣言받기를 覚悟하고서 銀行을 찾아갔다. 日本人 支店長은 豫想外로 恭遜하고 鄭重했다. 融資의 件과는 아무 関係도 없는 話題로 時間을 끄는 것이었다. 참다못해 単刀直入的으로 決判을 要求했다. 支店長도 말하는 것이었다. 日本人으로 歸化하는 日本国籍 取得의 申請도 하라고, C氏는 即席에서 일어섰다. 韓国사람은 性을 갈면 개(犬)자식이라고 하오 終戰前에 日本総督의 強制에 못이겨 개자식 된적 있었는데 이제 韓国이 独立되고 日本国과 対等하게 国交를 맺은 이마당에 와서 돈 빌려 쓰려구 개자식 될 수는 없소 이렇게 그는 내뱉고 돌아서 나왔다. 그날밤 그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서 焼酎잔을 비웠다고 한다. 憤怒와 悲哀와 그리고 失意가 뒤범벅이 되는 錯雑한 心情을 달래노라고

이튿날 그는 気盡脈盡한 몸과 마음으로 歸家했다. 아내에게 미안스럽고 아이들이 측은해서 몹시 괴로웠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내 얼굴에선 前에 없이 밝고 기쁜 気色이 감도는 것을 보는듯했다. 무슨 일일가 그는 아내가 내미는 銀行의 글이 박힌 封書를 받아쥐었다. 通知文이다. 融資해 준다는 通知文이었다. 그는 아내의 얼굴과 銀行의 通知文을 번갈아 보면서 그 前날 그 日本人支店長과 사이에 있었던 光景을 想起했다. 다시 한번 錯雑해지는 心情은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1年이 지난 1967年10月 그는 岡山市 所在 5層鉄筋建物의 말숙한 호텔을 開業하는 案内状을 그 当時 大阪에 駐在

勤務하던 執筆者에게 내보냈다. 그후 여러차례 C氏의 이야기를 僑胞集会場에서 필자는 引用하곤 했었는데 74年7月 大統領 就任式을 慶祝하는 在日僑胞 訪問団의 一員으로 이 C氏도 歸国했다. 그동안 근검절약하여 그때의 銀行 빚을 갚아 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의 그 日本人 支店長하고는 그후 어떤 交友를 맺어 왔느냐 묻는데 대한 C氏의 설명을 日本人들은 人間的으로 信頼를 가질 수 있다고 認定되는 韓国人(在日僑胞를 말함)에겐 어느 線까지는 마음을 주지만 그 韓国人이 日本人과의 어떤 競争관계를 갖게 되면 매정한 정도로 내밀었던 손도 뻬돌리고마는 그런 天性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C氏는 이 說明에서 行하기를 그때 그 日人支店長이 自己의 好意(?)를 拒絶하고서 融資를 断念했었던 無名 韓国人에게 도리어 融資를 決定한 것도 一種의 人間的 信頼感이 그의 心中에 생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自己네 銀行빚을 갚지 않고선 못견딜 性品과 自尊心을 가진 韓国人이라고 認定되었기 때문이었으리라는 이야기였다. C氏는 끝내 그日本人 支店長個人에 対해선 讃辞도 批判도 말하지 않았다.

위의 挿話(実存 人物의 実際이야기지만)에서도 能히 探知 把握할 수 있겠지만 在日僑胞의 日本化 문제는 在日僑胞 特히 그 二, 三世가 어느 程度로 깊이 日本化되었느냐 或은 될 것인가 하는 客観的 尺度의 問題로서 보다는 무엇으로서 自己 矛盾을 바로 잡으며 어떤 方向으로 自己 將來를 設計할 것인가 하는 主体的 意識의 問題로서 対処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볼때 結局 이 在日僑胞의 日本化 傾向의 問題는 앞에서 이미 考察한 在日僑胞의 社会的 特質의 하나로서의 <民族的 劣等意識> 문제에 連結되는 것으로 理解될 수 밖에 없겠다. 즉 위의 <主体的 意識>은 앞에서 指摘한대로 먼저 在日僑胞 스스로의 疾患인 <民族的 劣等意識>을 意識하는 데서 부터 発動되는 것이라야 하겠기 때문이다.

畢境 在日僑胞 社会에서의 日本化 傾向문제는 在日僑胞의 다른 社会的 特質인 民族的 劣等意識의 문제와 直結되는 것이며 이 民族的 劣等意識의 문제에 対하여 原因이 되기도 하고 結果가 되기도 하는 社会構造上의 中産 階層의 脆弱性문제 하고도 関聯이 없을 수 없는 문제라고 하겠다.

이상으로 在日僑胞의 社会的 特質에 있어 在日僑胞教育에 密接하게 関聯되는 세가지 즉 ① 在日僑胞의 民族的 劣等意識 ② 中間層의 微弱한 社会構造 ③ 在日僑胞의 同化(日本化)傾向등의 諸問題를 극히 概括的으로 考察해 보았으나 위의 세가지는 各其 孤立的인 単独의 特質이 아니라 三者가 서로 原因이 되고 또 結果가 되는 것 들이다.

이 社会的 特質 세가지는 在日僑胞教育의 順調로운 発展에 対한 沮害要因이라는 点에서 共通될 뿐만 아니라 在日僑胞教育이 要請되는 理由가 무엇이며 그 目標가 어떤 것인가에 対한 示唆点을 提供하는데 있어서도 共通된 根拠(資料)구실을 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韓国政府의 在日僑胞 教育 政策・方案에 있어서도 必히 考慮

되어야 할 前提 状況의 共通的 要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세가지 特質속에는 在日僑胞이면서도 国際共産主義 路線위에서의 民族의 異端的 存在인 共産 朝総聯系 勢力의 微妙한 政治力学的 作用이 内在해 있다는 点도 決코 看過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記憶되어야 할 것이다.

第 三 章 在日僑胞의 教育의 現況과 朝總聯共産教育實態

第三章 在日僑胞의 教育의 현황과 조총련공안교육실태

在日僑胞의 学校教育은 韓國政府가 在日僑胞의 教育 문제를 施策의 对象으로 取扱하기 前부터 存在하여 왔다. 이것을 在日僑胞 教育의 自生期라고 称할 수도 있으려니와 이에 関해서는 別途의 節에서 考察한다.

在日僑胞의 子女가 就学하는 学校는 그 設立의 目的이나 趣旨 또는 그学校에서 実施되는 教育内容으로 보아 여러가지 類型으로 区分지어질 수 있겠으나 가장 基本的인 것으로 생각되는 다음의 네가지 類型으로 分類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① 韓國学校 (世称 民団系僑胞学校)

原則的으로는 大韓民國의 國法에 依拠한 在外國民登録을 畢한 在日僑胞의 子女에게만 入学이 許可되며 韓国政府 (文教部) 에 依해 学校認可 (또는認定) 를 得한 私立의 正規 (公式) 学校教育 機関인 学校를 말함

② 朝総聯系僑胞学校

在日僑胞中 共産主義 信奉者 (또는 그 同調者) 들의 政治的 集団的 集団인 在日朝鮮人総聯合会 (略称 朝総聯) 에 依해 設立 運営되며 北韓地域内의 共産主義的 政治権力 集団으로 부터 監督 補助를 받고 있는 学校로서 共産主義 思想을 基盤으로 하는 教育을 実施하고 있으며 1965 — 68年사이에 그 大部分이 日本의 各地方

知事로부터 各種学校로서의 法的 認可를 得한 学校임.

③ 中立系 僑胞学校 在日僑胞에 의해 設立 運営되고는 있으나 上掲 ①의 類型이나 ②의 類型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中立的인 学校運営方針을 取하고 있는 学校로서 実際上으로는 日本国 大阪市 所在의 白頭学院 建国小中高等学校가 그 単一 存在임. 이 学校는 日本政府(文部省)로 부터 学校教育法에 依拠한 私立의 公式学校教育 機関으로서 学校 認可를 得한 唯一한 在日僑胞 学校임

韓国政府로서는 이学校를 認可하지는 않았으나 이 学校에서의 教育内容이 非共産主義的이면서 民族的인 것이므로 ①의 韓国学校 群의 一員으로 看做하여 取扱하고 있으며 1958年以来 包括 支援의 政策 対象校로 指目하고 있음. 朝総聯組織 亦是 이 学校 그들이 標榜하는 民族教育機関의 하나로 看做 宣伝하고 있음.

④ 日本系学校 — 日本国의 国立私公의 各級学校를 말함이며 私立의 경우 各種学校가 아닌 正規的인 公式教育機関(全日制건 定時制이건)으로서의 学校(学校教育法에 의한 認可校)을 말함.

以上과 같은 四大類型의 就学하는 在日僑胞 子女의 数的 実態를 韓国政府가 実施한 最初의 公開的인 調査(1961년 2月 文教部 -- 国会 合同의 在日僑胞教育実態調査団에 依한 調査)로 把握되었던 1960学年度의 것과 그로부터 満10年이 지난 1970년의 것을 대비해서 보면 1960년 — 70년간의 양적변화에 있어 전체 교포학생수는 1960년도를 100으로 기준잡았을때 70년도에는 84.6%으로 減少되었는데 그 理由는 小学校 및 中学校 在学生数가 72.9%와

84.5%로 各各 減少된 것에 있다.

高等学校在学生과 大学生이 各各 194.7% 184.6%로 增加한데 比해 小中校在学生의 이와 같은 減少는 日本 全国(日本人)의 趨勢에 따르는 現象이라고 하겠다.

即 中学校까지 9個年을 義務教育으로 実施하는 日本에서 未就学者는 極少하나 戦后에 継続 実施되든 産児調整의 結果로 義務教育過程該当의 人口는 減少된 反面 日本政府의 後期中等教育 拡充政策과 大学教育의 拡張策 高等学校生 数는 增加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 方面의 事情은 다음表를 参考하여 充分히 代弁해 주고 있다.

参考表 日本全国(日本人) 各級学校在学生数의 変化

年度	小学校在学生(증감율)	中学校在学生(증감율)	高等学校(전일제 및 定時制)(증감율)
1961	12,590,680(100%)	5,899,973(100%)	3,239,416(100%)
1969	9,401,193(74.6%)	4,865,196(82.4%)	4,337,772(103.4%)

②在日僑胞 全体의 小学生 数 및 中学生 数가 위와같은 減少線上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韓国学校(中立系学校도 包含)의 그것과 朝総聯系学校의 그것이 모두 增加를 보여주고 있음은 過去10년間에 両者가 모두 量的発展을 劃策하였음을 立証한다 하겠으나 中立系学校를 包含치 아니한 韓国学校간의 数的 增加는 高等学校를 除外하고는 10年間의 增加가 別無状態이고 特히 中学校의 경우는 도리어 減少를 보이고 있음은 注目을 要하는 일이다.

③ 日本系学校 在学生이 全体的으로는 ①에서 記述한 趨勢에

따라 基準年度 (60)에 比해 76.3%로 減少되었으나 高等学校 学生과 大学生이 各各 224.1% 158.4%로 幅넓은 增加를 보이고 있음은 在日僑胞의 経済 生活水準이 그만큼 向上되었고 教育熱이 增大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 類型学校別 在学生 総数의 比較에 있어서 日本系学校 在学生 総数가 全僑胞学生 総数에 対하여 차지하는 比率이 1960年度에 82.8% 이었던 것이 1970년에 이르러 71.9%로 減少된 대신 各 僑胞学校 在学生数가 차지하는 比率이 相対的인 增高를 보여 주고 있어 韓国学校가 0.6%에서 1%로 中立系가 0.4에서 0.6%로 幅을 넓혔으나 両者를 同一視 合算하더라도 1.1%에서 1.6%로 增高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에 比하여 朝総聯系 学校는 1960年度의 16.1%에서 70년度의 26.5%로 大幅的인 增高를 보여주고 있는바 이는 格別한 注目을 要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같은 10年間(1960 ~ 70)의 在日僑胞 学生就学実態의 比較(変化)에서 볼때 韓国学校를 中心으로 한 学校教育面에서 在日僑胞教育은 매우 悲観的이며 非 効率的인 것으로 評価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学校教育이란 것이 꼭 量的인 面에서만 評価되어야 한다는 論理란 있을수 없으며 또 그럴 必要도 없는 일이겠지만 過去10年間(1960 ~ 70)의 在日 韓国学校가 보여주는 그 微微한 量的 成長은 確実히 韓国学校 그 自体와 韓国学校를 둘러싸고 있는 社会

環境이 모두 어떤欠陥을 未備 不足을 안고 있었다는 証左라 하겠다. 그 両者사이에 密接한 関係가 造成 維持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10年間의 韓国学校学生 数는 増加率이 朝総聯系 学校의 그것에 比해 훨씬 뒤떨어질 뿐 아니라 全体 僑胞学生人口에서의 占有率이 朝総聯系 学校의 16.1%에서 26.5%로의 増大에 比해 韓国学校가 겨우 0.6%에서 1.0%로의 変化에 그치고 있다는 이엄청난 事実은 量的인 面에서의 評価를 생각케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 間의 韓国学校에서의 教育의 質과 内容이 学校組織의 社会環境에 密接한 適応性을 띠운 것이 있거나 아니면 그 社会的 環境을 強力하게 啓蒙 指導하여 人力을 吸引하는 精神的 힘을 発揮할만한 것이었던들 그 量的인 成長이 그 程度의 것으로 沈滞되었을理없기 때문이다.

45名이라는 法的 学級人員을 1個教室만이라도 채워 보려고 校長과 教職員들이 家家戸戸를 尋訪하여야 하는 求乞아닌 求学生 行脚에 奨学担当者들의 加勢까지 빌려야 하는 在日僑胞学校의 開校以来 変함을 모르는 年中行事는 将来에의 可能을 疑心케하면 했지 決코 希望的도 鼓舞的도 아니다 라는 말로서 示唆되는 在日 韓国学校와 그 社会環境사이의 教育的 不毛性은 在日僑胞教育을 学校教育이니 社会教育이니 하여 区分지어 말할 그 以前의 문제점을 提示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悲観을위한 悲観이나 失望을 위한 失望이 아닐진대 過去

10 년간의 在日学校 (韓国) 가 보여주는 上述한 바와 같이 非鼓舞的이고 反希望的인 統計数学上의 現実과 厳存하는 諸 事実을 外面할 것이 아니라 冷静하게 直視하고 果敢하게 対処하는 姿勢가 참으로 重要한 일이다.

지금까지 在日僑胞教育에서의 現況은 그 量的인 側面서만 살펴보았거니와 数的으로 劣勢에 있고 그 社会的 環境으로 부터 所重하게 여겨지지 못하는 立場을 안고 있는 韓国学校의 民族教育機関으로서의 未来 志向性의 根本的 打開策은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在日韓国学校가 첫째는 在日僑胞 社会에 対하여 둘째는 本国과의 関係에 있어서 그것이 存立하는 理由는 무엇이며 그것의 窮極的 目標는 어떤것인가 하는데 대한 究明은 위에서의 現況 考察만으로도 充分히 그 必要의 切実함과 緊要함이 示唆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根本的이고 本質的인 問題性에 対한 考察은 개관에서 考察하고저 한다.

그리고 이 在日僑胞教育에서의 学校教育의 現況을 理解하는데 있어 매우 有益한 文献 資料라고 認定되는 特別寄稿文이 送附돼 있는 바 하나는 僑胞出身의 教職者인 現 東京韓国学校 校監 金昌式氏로 부터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66 년 以来 韓国学校 勤務 政府派遣教師로서 配置 服務하고 있는 李教師의 글이 그것이다.

日本系学校와 僑胞学生

在日僑胞教育의 現況을 살피기 위한 社会教育 分野의 概観에 있어 教育施策 主管者의 立場만을 主観点으로 삼은 경우라면 앞에서 記述한 대로 在日韓国教育文化센터 中心의 考察만으로 足하겠으나 在日僑胞의 教育 現実에서 日本系学校에의 僑胞子女의 就学 문제는 그 차지하는 比重이 莫大한 것이므로 日本系学校와 僑胞学生 그 自体를 主要한 教育 現実로 보고 여기에 考察해 보기로 하려는 것이다.

僑胞学生이 재학하는 日本系 学校 或은 日本系 学校에 就学하는 僑胞学生이라고 하는 문제는 原則的으로 학교교육의 分野이겠으나 韓国立場에서의 教育施策上으로는 社会教育的 手段 (対策) 의 対象으로 原則을 留保하고 現実을 좇기도 한다.

日本系学校内의 民族教室 — 1948 년 당시 美軍政下에서의 日本政府 (文部省) 当局은 이른바 조선의 在日 朝鮮人의 民族教育을 標榜하면서 共産主義的 政治思想 教育을 恣行하며 暴力과 煽動의 集団으로 日益 膨脹해 가는데 対하여 威脅을 느끼게 되어 公安 秩序上의 治制策을 講究키로 決定하고 同年 1月24日字로 各地方長官 (都 • 道 • 府 • 県의 知事) 에게 다음과 같은 通牒을 発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즉 「在日 朝鮮人은 日本의 法令에 服従해야 한다. 따라서 義務教育은 学校教育法에 의하여 実施되어야 하며 朝鮮人学校의 設置는 知事의 認可를 要한다. 教科書 및 教課内容등에 対해서도 学

校教育法의 規程이 適用되는 것이다. 但 朝鮮語등의 教育을 課外로 行하는 것은 無妨하다」

上揭 文部省 通牒文件의 但書 部分을 共産主義(朝聯)努力에 対한 治制策에서 豫見되는 在日僑胞의 民族的 反抗은 事前 견제하기 위한 안전변적인 表現이었을 것으로 推測 解釈되거니와 同年4月에 이른바 阪神地 教育이 発生하여 民团—朝聯 提携의 抗拒運動이 展開되었다.

이러한 民族的 感情 激動을 政治的으로 利用한 朝聯의 暴力的 革命工作은 日本 共産党과의 内容的인 合作으로 激化되었고 이런 事態의 結果로서 1949년9月 美軍政의 命令으로 朝聯의 組織이 強制 解散되는 것과 同時에 全国에 散在했던 337個의 僑胞学校(少数의 民団系 学校도 包含)가 閉鎖를 当했던 것이다. 그후 朝聯系 自体의 組織名義 変更과 함께 傘下의 学校施設을 再整備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은 1948—49년의 一連의 事態를 収拾하려는 뜻에서 日本政府는 多数의 僑胞子女가 就学하는 日本의 公立学校에서 朝鮮語의 課外授業을 担当한 朝鮮人 講師를 各 地方長官 裁量으로 採用할 것을 示達하기에 이르렀다고 알려져 있는바 이것의 結果로서 日本校内에 民族教室이란 것이 誕生케되어 20年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도록 自然減少一路를 걷고는 있으나 그命脈이 存続되고 있다.

1950년 첫 設置를 본 이 民族教室은 그后 朝総聯 共産組織이 노리는 絶好의 侵透 吸引 工作対象이 되어 온데 反하여 民団組織에

依해서는 無觀心과 傍觀의 対象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状況의 長期 持続은 이 教室을 担当하는 講師의 大部分을 朝総聯組織下의 政治 工作人으로 代替하게 한 主要原因의 구실을 하였을 뿐이다.

이 日本校内의 民族教室과 大同少異한 背後·事情·経緯로 하여 存在하는 것에 日本 公立学校에 所属된 民族分校라는것이었다. 이것은 民族教室의 규모가 変모 拡大되어 独立된 校舎와 校地를 가진 施設의 形態라고 보인 큰 錯誤는 없겠으나 所謂 人民共和国의 国旗와 그 首領인 金日成의 肖像画밑에서 挙行되는 学生体育 行事에 이 分校의 本校인 日本人 学校의 校長이 招請되어 祝辭를 하고 卒業時에는 그日本人 校長名義의 卒業状이 授与되고 있는 事例가 이 民族分校가 보여준 1966 ~ 67 년까지의 厳存하는 実態이다.

日本系 学校内의 民族教室에 対한 韓国政府(文教部)로서의 指導対策은 1964년代부터의 일인바 或者의 경우는 韓国語教室이라는 名称으로 改称하는 学校도 생기었으나 1971년 현재까지도 相当多数가 朝総聯 세력의 영향下에 있는 実情이다.

朝総聯의 共産教育의 本質과 実態

在日僑胞教育의 現況을 分野別로 概観함에 있어 朝総聯의 共産教育을 이처럼 独立시켜 다루지 않을 수 없으니만큼 그 教育組織의 性格이 特殊하고 量的勢力도 不少하다고 함은 民族의 슬픔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本質과 実態의 主要 内容만을 抜萃 하여 簡略하게 陳述하기로 한다.

所謂 民主主義的 民族教育의 正体

朝総聯은 저들의 教育을 이름지어 民主主義的 民族教育이라고 하여내세우고 있다고 본다. 이 民主主義的 民族教育이란 무엇이냐는 質問에 저들 朝総聯自身은 다음과 같이 註釈을 附하고 있다.

즉 民主主義的 民族教育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形式的으로는 民族的이고 内容에 있어서는 民主主義的 教育을 実施함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저들이 対外的 宣伝 冊子나 対内的 教育 刊行物에서 누누히 強調하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注目할것은 이 用語 즉 民主主義的民族教育이란 말은 저들의 한 政治的 宣伝上의 用語일 뿐 上掲의 註釈사이에 別로 発見되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民主主義的民族教育의 正体를 알자면 저들의 학교에서 実際로 実施되고 있는 教育内容을 検討해 봄이 捷径이라고 생각하겠으나 먼저 이 用語의 出処를 캐봄이 그 正体의 輪廓을 파악할 수 있다 하겠다.

蘇聯의 高等教育機関에서 教員養成을 위하여 使用하는 教育理論에 관한 公認教科書 (教育学) 에 의하면 道徳教育에 관한 党的解釈으로서 다음과 같이 定義를 내리고 있음을 볼수있다.

㉮ 道徳教育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소비엘的 愛国主義와 뿌로레타리아国際主義 精神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일이다.

㉯ 소비엘的 愛国主義란 무엇인가 그것은 社会主義的 祖国에 対한 無限한 愛情을 말하는 것이며 — 中略 — 即 形式에 있어

서는 民族的이고 内容에 있어서는 社会主義的 文化가 自由로히 発展하고 있는 国家의 本質에서 생기는 것을 말함이다.

위의 蘇聯 教育学 教科書에서의 引用文中 傍点部分과 前記 朝総聯의 自家註釈文과를 対照해 보면 民主主義的民族教育의 本籍地를 짐작하기에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또하나의 文献的 参考를 들어 보기로 한다.

蘇聯에 있어서는 다음의 여덟가지를 社会主義的 原則을 基礎로하여 蘇聯単国民教育 制度가 成立되는 것이라고 上掲 教育学教科書는 明記하고 있다.

① 学校의 国営制度

蘇聯의 모든 学校는 国家에 依하여 開催되고 維持되고 管理된다.

② 単一学校의 原則

이 原則의 첫째는 共産主義 社会의 積極的인 建設者를 養成한다는 単一한 共通 目的으로 모든 学校가 結合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둘째는 対 敵的 複数의 階級을 위한것이아니고 오직 프로레타리아 階級만을 위한 学校라는 点. 그 세째는 모든 民族을 위한 単一한 学校制度라는 점이다.

③ 学校의 全員入学制

労動하고 있는者가 生産을 떠나지 않고서 自身의 教育을 継続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④ 学校의 一般制와 義務制(説明文 省略)

(5) 学校와 教會와의 完全한 分離 및 学校의 無条件的인 世俗性

(6) 母語에 의한 教育과 教授를 받는 일에 対한 蘇聯邦의 모든 民族의 平等한 権利

蘇聯邦 内의 모든 共和国에서 内容에 있어서는 社会主義的이고 形式에 있어서는 民族的인 文化가 発達해 가고있다 (中略)

앞의 時代에 文化面에서 뒤떨어졌던 蘇聯邦内의 여러民族은 読・書・算의 能力과 中等教育 및 高等教育의 面에서 다른 모든 民族에 필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英雄的인 일을 해내지 않으면 안된다.

(7) 教育面에서의 男女平等権의 原則

(8) 市民과 家庭과 学校間의 結合의 原則

長長期 世代에 対한 共産主義的 教育의 諸 問題는 広範하게 소비엩市民에 依하여 審議된다.

以上과 같이 8 個項目의 原則을 自由民主的 価値観에서 낱낱이 分析批判한것 까지는 없었으나 上掲의 6 항標題에 따르는 説明文에서 発見되는 형식에 있어서 云云과 内容에 있어서의 云云은 所謂 民主主義的 民族教育의 正体를 完全히 들어낸 것임을 容易하게 알아 차릴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証拠 文献의 뜻하는 바와 朝総聯 自身의 註釈과의 相関지어 分析吟味해 보면 民主主義的民族教育에 対한 判断을 다음과 같이 要約해 볼수 있겠다.

첫째 形式에서 民族的이고 内容에서 社会主義的이라고 했으니 만

큼 朝総聯 즉 共産主義者들의 教育에 있어서의 主体는 社会主義이지 民族主義가 아니다.

따라서 民族的인 것이라고 하는것은 社会主義建設이라는 目的을 위한 한갖手段에 不過한 것으로 取扱되고 있는 것이 民主主義的 民族教育의 本質的 特色이다.

둘째 共産主義者들에게는 目的을 위한 手段의 不拘碍 戦術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自由国家 市民들의 耳目을 끝까지 속이도록 形式=民主主義 内容=民族主義라고 大胆하게 偽装하지 못한 것은 上掲한 蘇聯邦国民教育制度上의 8大原則을 無修正 受容 履行하지 않을 수 없는 位置에 北傀와 朝総聯이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의 한 証左이다.

세째 民主主義的 民族教育이란 것의 概念은 소비엘 聯邦主義에 立脚한 共産主義의 世界化 乃至는 全世界의 共産主義化 思想의 한 局面을 나타나는 것으로서 教育에 있어서의 民族的 主体性 確立을 巧妙하게 標榜 偽装하고 이를 変質시킴으로서 教育組織을 通한 共産主義 勢力 拡充과 教育組織에 依한 間接 侵略의 基地 強化를 図謀하려는 데서 朝総聯과 北傀가 採択한 政治的 術策의 表現이고 그 宣伝口号에 不過한 것이다.

教育目的과 教育方針 ── 朝総聯은 그의 組織 綱領 第1条에서 우리는 在日 全体同胞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 주위에 총집결시키고 云云이라고 하여 在日僑胞를 北傀 政治権力밑에 묶어 놓은 일을 第一의 目標로 하고 있거니와 이 政治的 目的을 基底로 하

는 朝総聯의 教育目標와 教育基本方針 (共히 各級学校共通) 을 다음에 살펴 보기로 한다.

1. 教育目的

人民民主主義原則에 立脚한 教育을 実施하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公民으로서 必要한 知識 技能을 習得하게 하여 民族的 祖國建設에 有為한 人材를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이는 人民民主主義 原則에 依拠한 教育이라고 한것은 朝総聯 教育의 政治와 性格을 端的으로 들어내는 말이다. 즉 人民民主主義란 것은 資本主義的 成長過程을 거치지 않은 後進國家 (社会) 에서 共産党이 政権을 奪取하거나 樹立하고나서 当分間 과도기的으로 取하는 名目上의 複数政党 制度라든가 相対階級의 容認 또는 宗教的 勢力이나 社会的 旧習 등의 묵인을 일컬어 말하는 共産党의 戦略用語이거니와 이 原則에 依拠한다고 함은 未来 어느 時点에 이르러서는 日本에서 일지라도 期於코 共産主義政権이 樹立되고야 말것이라는 大前提위에 선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大前提를 原則으로 하며 이 原則에 依拠하여 実施함을 目的으로 하는 教育이란 完全히 共産主義的 階級革命을 위한 手段으로서의 教育을 意味할 따름이다.

③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公民으로서 必要한 이라고만 前提하였을 뿐 人類의 平和와 共栄心같은 人本主義的理念의 前提는 그림자조차 비치지도 아니한것은 唯独 北傀가 줄곧 固守해오는 閉鎖的이고 独善的인 共産主義的 社会体制에 符合되는 것으로서 独裁者 崇

拝를 그 骨子로 하는 저들 朝総聯의 教育 実践을 뒷받침해 주는 理念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留念할 것이 있다. 即, 朝総聯의 共産教育을 弁護 同調하는 日本人 知識人중에는 위에서와같은 教育目的의 政治思想性을 隠蔽하기 위한 宣伝을 代行하는 者들이 있다는 事実이다.

2. 教育基本方針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憲法과 政綱에 基礎를 두어 学生의 政治的 訓練 強化에 注力하고 諸般 民主課業의 國家的利益使命을 自覚하게 한다.

㉯ 祖國과 人民을 위하여 忠実하게 服従하고 愛國思想을 培養한다.

㉰ 모든 非科学的 思想을 一掃하고 모든 事物을 科学的으로 確認하고 処理할 줄 아는 能力을 養成하여 科学的 世界観을 確立하게 한다.

㉱ 協同의 意義와 技術의 重要性을 自覚하게 함으로서 生産意慾을 向上시키고 國家資源을 愛護하고 人民経済発展에 寄与할 수 있도록 教育한다.

㉲ 民族文化를 究明継承함과 아울러 蘇聯을 비롯한 先進 國家의 文化를 積極的으로 摂取하여 民主主義朝鮮民族 文化를 発見하게 할 수 있도록 教育한다. 規律을 지키고 個人을 利益에 従属시킬줄 아는 民主道徳의 実践者가 되게끔 教育한다.

以上과 같이 6個項目에 걸쳐 朝総聯의 教育 基本方針이 確定되어 있다.

이것들에 対하여 極히 重点的인 分析을 여기에 略述하기로 한다.

① 共和國의 憲法과 政綱에 基礎를 두고 云云하는 그憲法과 政綱에는 親日分子의 財産所有 一切를 國有로 没収하고 親日分子는 精神病者와 同一하게 選挙権과 被選挙権이 없는것으로 規制 明示되어 있다.

財産의 所有니 하는것 自体가 한갓 名目上의 装飾物에 불과한 것이 北韓 共産主義 社会의 実態이지만 親日分子에겐 이런 名目上의 것 조차 許容되지 않는다는 것이 注目을 要하는 点이다. 即, 北韓에서는 共産党의 命令에 잘 순종치 않으면 分子로 지목되고 分子로 지목될땐 日制時代에 中等教育以上의 教育을 받았다든가 日本에서 教育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親日分子로 烙印이 假借없이 찍히게 마련이다. 이 親日分子를 規定하는 法令이 따로 없음은 勿論이다.

要컨데 階級意識을 불러 일으키는 無慈悲한 闘争의 倫理를 갖게끔 하는 데에는 그만큼 憎悪의 対象이 될만한 資本家階級이 있어야할터인데 日本植民地로 부터 解放된 北韓에 그런 階級이 있을理만무하고 보면 이 親日分子 云云는 共産党 独裁政権에 妨害가 될 素地가 있는 知識分子를 治制할 수 있도록 하는 名分을 찾으려 한것에 不過한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北送이된 僑胞 特히 그중에서도 有識分子가 北韓社会에서 어떤 処地에 놓여 있는가를 보면 다른 証拠의 도움 없

이도 充分히 알 수있는 일이다.

② ㉮항의 政治的 訓練強化 ㉰項의 科学的 世界観의 確立 ㉱項의 個人은 人民의 利益에 従属시킬줄 아는 民主道德의 実践등등은 ㉠ 共産主義理論을 学習시켜 ㉡ 오로지 唯物史観的 価値観과 階級闘争의 意義를 갖게하여 ㉢ 対自由世界 浸透 破壊工作과 共産党의 細胞組織 活動을 위한 訓練을 쌓게하는 한편 ㉣ 党의 命令에 무조건 服従할줄아는 工作員을 養成하는 의미와 内容들인 것이다.

第四章 在日僑胞教育의 問題點과 政策上問題點

第四章 在日僑胞 教育의 問題点과 政策上의 諸問題

第一節 教育現実에서 提起되는 問題点

最近 文教部의 資料를 보면 다음과 같이 指摘되고 있다.

① 在日韓国学校의 上級学校 進学資格問題

② 在日韓国人 教育後援会의 財団法人体 認可 問題

③ 京都 韓国学校 건축문제

④ 母国留学生의 生活指導 및 就業保障策 講究 問題

1971年 12月 現在로 当面한 問題点이라고 列挙된 上掲 事項들은 모두 그실 오랜 세월을 두고 恒時 当面한 問題点으로 登場되고 있는 것이다.

A, 一覧表에 의한 概観

여기서 우선 問題点들을 類型化 事業別 一覧表로 作成하면 다음 表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在日僑胞教育事業에서의 現実的 問題点

事業類型	豫算上의関聯単位 事業名	問題点番号	問題点
第一類 現地実施의 学校教育分野	o 在日韓国学校 施設補助	①	日本 学校教育法의 施設基準 및 日本学校의 平均施設에 比較되는 韓国学校 施設의 貧弱相
		①-가	東京学国学校 校地 購入費 償還
		①-나	大阪韓国学校 施設 補強策 講究
		①-다	京都韓国学校 新校舎 建築 推進
		②	在日韓国学校의 上級学校 進学資格 認定
	o 在日韓国学校 教師俸給補助 o 政府派遣教師 人件費	③	韓国学校 運営母体의 財政負担力 不実
		④	政府의 消費的補助의 限界性과 韓国学校経常費(特히 研究活動費)脆弱性

事業類型	豫算上의関聯 単位 事業名	問題点 番 号	問 題 点
		⑤	民族(国民)教科 教育의 教育効果 不振
		⑥	韓国学校 卒業生의 進路指導 및 組織化 対策
		⑦	白頭学院(中立系僑胞学院)의 運営方針 正常化
第2類 現地実施의 社会教育의(非公式学校教育)分野	o在日教育文化센타 運営 및 増設	⑧	教育文化센터의 管轄区域 過大와 人力의 不足
	o政府派遣教師의 人件費	⑨	센터의 基本施設 및 装備의 貧弱
		⑩	日本学校就学 僑胞学生指導策
		⑩-가	多数僑胞学生 在学日本学校 対策
		⑩-나	日本学校内 民族教室対策
		⑩-다	夏季学校履修의 日本学校在学僑胞의 学生指導策
		⑪	教育的매개체로서의 通信手段 강구

事業類型	豫算上의関聯単位 事業名	問題点番号	問題点
第3類 現地実施의 其他分野(学校教育과 사회教育을 共히 指導支援하기 為한 것)	o "在日韓国人教育後援会" 基金積立補助	⑫	"在日韓国人教育後援会"基金造成実績의 不振
	o 駐日奨学室의 教育行政費	⑬	"後援会의 法人体 資格認可獲得
		⑭	収益性提高를 위한 後援会 基金運営方案
		⑮	僑胞教育에 関한 常設研究機構의 現地設置
第4類 国内実施의学校教育分野	o 在日僑胞 母国留学生指導費(奨学費包含)	⑯	僑胞社会 指導者養成計劃으로서의 在日僑胞 母国留学生 教育指導策
		⑯-가	僑胞社会指導者로서의 教育指導方策
		⑯-나	国内修学中의 生活指導(保護) 및 修学을 필한 者의 僑胞社会에서의 役割
第5類	o 在日僑胞学生 "夏季学校" 開設 運営	⑰	短期教育으로서의 夏季学校의教育効果 増大策
		⑩-다 (중복)	履修後 帰国学生의 組織化 指導

事業類型	豫算上의関聯単位 事業名	問題点番号	問題点
第6類 国内実施의 其他分野(学校教育과 社会教育을 共히 指導支援하기 위한 것)	o図書 및 教科書供給	⑱	僑胞教育行政의 所要人力 不足과 一貫性 維持
	o僑胞教育有功者 招請	⑲	僑胞教育事業의 効果測定団体確立 및 実効性있는 長期的教育計劃
	o僑胞教育研究団体補助	⑳	"在外国民教育政策審議委員会"의 法制化와 効果的 運営
	o其他(派遣教師의 派遣및 交替費)		

B. 現実的 問題点

앞서 一覧한 20個事項의 問題点들은 各其의 解決 難易度와 比重을 달리하는 것 들이지만 모두가 在日僑胞教育의 現場에서 如実하게 提起되며 政府施策의 進路앞에 현저하게 露出되어 있는 현안의 問題点 들이다.

이들 問題点에 対하여 個別的으로 혹은 몇개씩 묶어서 内容과 関聯事項에 対하여 간략 해 보기로 한다.

① 日本学校教育法의 施設基準 및 日本学校의 平均施設에 比較되는 韓国学校 施設의 貧弱 問題

가. 東京韓国学校 校地購入費 償還問題

나. 大阪韓国学校 施設補強策 講究問題

다. 京都韓国学校 新校舍建築 推進問題

이상 3가지의 在日 韓国学校 施設을 위하여 1957~71年 까지 政府가 補助한 総額은 1,418,286 $에 達한다.

이 적지않은 金額의 施設補助金이 万若에 1960年代 初期 몇年동안 一時에 集中的으로 投入된 것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学校施設의 貧弱문제는 70年代 現在에 이르도록 문제로서 남아 있지 아니 했을 것이다.

日本의 不動産時勢가 급격히 상승하여 幾何級数的으로 地價 등귀현상이 빚어진 것이 1960年代 初期의 일이므로 그 当時에 100万$ 정도의 投資를 단행 하였더라면 東京과 大阪의 韓国学校는 우선 校地面積에 있어서만이라도 빈약상을 면했을 것이다.

것 처럼 校地만은 해결된 상태임으로 論外로 치더라도 現校地 1,000坪 미만의 캠퍼스 안에 500여명의 幼,小,中,高等学生을 収容하고 있고 초라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大阪韓国学校의 경우는 東京의 類가 아님은 重言을 要치 않는 것이다.

東京学校가 日本政府의 所有인 그 1,700坪 未満의 現 校地를 払下 받았으나 契約에 依하여 1972年~76年間에 総 1,027,440 $의 巨額을 年次償還하여야 할 処地에 있다는 事実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補助에만 依存하여 온 3個의 韓国学校가 안고 있는 施設 貧弱問題의 解決은 実로 엄청난 問題性을 内包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학교의 施設貧弱을 解決하는 일이 韓国学校의 現在에서 将来에로의 모든 問題의 가점이 되고 基礎가 된다고 함은 説明을 要치 않으며, 在日同胞의 教育을 政府가 抛棄치 않는 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떠한 対策이 切実하게 必要하며 또한 要請된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東京都学校의 문제는 建築工事의 許可 및 監督権者인 京都市 当局과 建設用地 隣接의 日本人 住民들에 의한 善意의 理解와 友好的인 協調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임을 밝혀 둔다.

② 在日韓国学校의 上級学校進学資格 認定 問題

上級学校 進学資格 문제는 在日韓国学校들이 日本国内法에 의한 学校認可를 得하고 있지 않다는 데서 惹起되는 것인데 原則的으로는 韓国政府의 学校認可를 받은 이들 韓国学校가 단순히 上級学校

그런데 1960年代 投入한 学校施設補助金은 当時의 東京 韓国学校校舍 신축을 위한 施設 補助金과 其他 定例的인 施設補助이외에도 模範学校 設置費라 하여 1960年度分이 320,000 $, 61年度分이 150,000 $ 그리고 62年度分이 70,000 $ 累計 540,000 $이나 投入되었으나 그 中에서 投資의 効果를 본것은 오늘날 건축허가 문제로 新校舍 建設이 지연되고 있는 京都韓国学校의 경우인 160,000 $뿐이고 残餘는 1961~62年 期間中의 無謀하고 不定見한 学生奨学金 拡散 投入策으로 그 대부분이 소진되고 1962年末未執行豫算額整理로서 청산되어 190,273 $이 1963年에 在日韓国人教育後援会의 창설과 더불어 그 基金으로 転入 됐던 것이다.

어떻든 오늘날의 在日韓国学校 施設 貧弱問題는 教育的 問題를 떠나서라도 国家威信의 問題로 봐야 할 程度로 深刻性을 띄고 있는 問題이다.

政府 補助金으로 1960年 着工해서 1961年落成한 新築校舍를 가진 東京韓国学校의 경우를 보더라도 校地面積이 1,700 坪미만의 캠퍼스 안에 小, 中高等 学生 600여명이 同居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同校 金昌式 校監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日本学校教育法이 定한 施設 基準에 의하면 約 70%의 수준에 있는 東京都立의 某高等学校의 現 教育施設에 比하면 約 36%에 불과 하다는바, 70%의 36%이면 결국 日本学校教育法의 基準에 비추어 21%의 水準에 있는 것이 東京韓国学校의 施設 現況인 것이다.

現在 建築工事에 着手中인 京都韓国学校의 경우는 앞에서 밝힌

進学 資格을 認定 받기 위한 方便으로 日本国政府의 学校 認可를 二重的으로 받고자 한다면 法理的 矛盾을 招来할 것이고 主権国家의 威身에는 관련된 일이라 할 것이다.

事実 在日 外国人 学校中 가장 강력한 国家的 背景을 갖고 있는 Amerieah School도 하나의 教育文化 施設이란 뜻에서 日本의 地方長官이 認可権을 쥐고 있는 各種학교로서 登録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現在 文教部가 推進하고 있는 이 문제 解決의 方法은 日本学校 教育法 第47条 및 56条에 依拠한 文部大臣의 지정을 받음으로서 上級学校 入学資格의 학력 인정만을 받도록 하자는 方法으로 알려져 있다.

即, 日本政府의 国内法의 法的資格은 論外로 하고 友好的인 行政措置에 依支하여 問題를 해결 하자 하는 것이다.

이는 外交的인 折衝을 말하는 것으로 1965年에 調印된 韓日協定체결 이후 계속 우리측 정부와 外交的인 절충을 하여 友好的인 検討를 하겠다는 취지의 約束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1965年12月28日字로 日本文部省에 各地方長官에게 朝鮮人만을 収容하는 教育施設의 取扱에 対하여 또는 日本国에 居住하는 大韓民国 国民의 法的 地位 및 待遇에 관한 日本国과 大韓民国간의 協定에 있어서의 教育関係 事項의 実施에 관하여 公文을 通達한 事実이 있다.

勿論 이러한 事実로 인하여 字句 해석상 격론이 일어나 우리에게 더욱 악영향을 야기시킬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였지만 말이다.

實際에 있어서는 韓国学校의 卒業生이 日本 国内의 私立 日本上級学校에는 別다른 支障없이 進学하고 있으며 国立의 경우도 志願者의 学業実力에 따라서는 進学의 길이 全無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観点에서 본다면 継続 꾸준하게 그리고 立権国家의 威身을 세우면서 対 日本政府에 折衝을 펴 나감으로서 問題해결을 기해야 할 것이다.

③ 韓国学校 運営母体(財団理事会)의 財政負担力 不実問題

④ 政府의 消費的 補助의 限界性과 韓国学校의 経常費(특히 研究活動費) 脆弱性 問題

上記 두 問題는 韓国学校 運営의 現実에서 두드러지게 露出되는 문제점이다.

〈收入財政〉面에서 韓国学校의 財政을 살펴 보면 大体的으로 ㉠ 政府補助가 30%, ㉡ 財団理事会가 25%, ㉢ 学生負担이 30%, ㉣ 其他收入이 15%이고 〈支出財政〉面에서 볼것 같으로 ㉠ 教職員人件費가 75%, ㉡ 教育活動費를 除外한 其他의 消費的 支出이 15%, ㉢ 教育活動費로서의 消費的 支出이 6%, ㉣ 教材用品 및 도서구입 등의 資本的 支出이 4%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状況을 놓고 볼때 政府의 消費的 補助가 全体 送金執行分의 67.9%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 韓国学校의 경상비를 補助하게 되는 在日韓国学校 教師捧給 補助金 23.4%가 包含되어 있으니. 現在 規模 以上의 韓国学校 経常費를 政府補助에 期待하기는 극히 어려운 것으로 첫째 学校 財政收入面에서의 財団理事会의

負担이 問題視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둘째 教育의 質 向上과 内容改善을 위한 教育活動費로서의 消費的 支出과 教材 및 도서 購入등의 資本的 支出部分의 経常費 支出이 문제로 提起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의 解決策이란 ① 財団理事会組織의 力量強化 ② 在日韓国人教育後援会로 부터의 補助 拡大 ③ 学父兄 組織의 寄与増大 ④ 僑胞社会 全般의 韓国学校에의 認識과 透徹한 協力 態勢의 강화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 解決策등이 実践上의 隘路와 難関을 제기하는 문제점으로 등장 하게 된다. ( )

⑤ 民族 教科(特히 国語科)教育의 教育効果 不振 문제

⑥ 韓国学校 卒業生의 進路指導 및 組織化 対策問題

在日僑胞教育問題에 関心을 表示하는 一部 識者中에는 이 韓国学校에서의 教育効果의 不振 및 그 卒業生들의 社会的 民族的 寄与度의 殆無라는 現実에 対하여 失望한 나머지 그 原因을 韓国学校에서의 現存 教育目標가 二重的이라 하는데 그 解決策으로서 現地에의 적응력 培養에 韓国学校의 基本運営 方向을 設定해야 한다는 生覚을 하는 분들이 있다.

이 분들은 事態의 表面的 事実만 보고서 安易한 姿勢로 조급한 解決方法을 찾으려는 데서 발생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関한 論議는 在日僑胞教育의 基本目標에 관한 論議로서 다루어 져야할 性質의 것임으로 韓国学校에서의 教育効果의 不振을

打開하기 위하여 그 教育内容面에서의 教育技術과 教育方法을 向上改善하려는 乾坤一擲의 全力 投入을 試図해 본 일이 있었느냐?
教育組織面에서의 出力인 韓国学校卒業生의 民族的 社会的 寄与를 誘出, 指導하기 위하여 어떤 高位 水準에서의 対策이나 研究, 検討를 権威 当局이 真摯하게 取해 본 적이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対하여 조용히 生覚해 봐야할 문제인 것이다.

어떻든 이 두問題의 解決方案은 한마디로 말해서 韓国学校에서의 教育実践을 直接 責任맡고 있는 教育 奉仕者들의 教授-学習에서의 技術向上과 그 方法의 改善을 可能하게 하는데 달려 있으며 이들 教育実践者들로 하여금 卒業生組織에 対해서 까지도 熱意와 努力을 다 하게 할 수 있는 諸 与件의 造成 保障이라고 하겠다.

第二節 在日僑胞 教育을 위한 政策上의 問題点

A. 教育基本目標의 二元性問題

세개의 在日韓国学校(東京, 大阪, 京都)들이 그들의 教育計劃書에서 밝히고 있는 各其 学校自体의 教育目標들 중에서 共通的인 要素들을 抽出하면

① 韓国人으로서의 自覚과 矜持
② 在日僑胞社会와 母国発展에의 寄与
③ 協調와 団結
④ 健全한 生活能力

⑤ 日本 社会에의 適応力등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다같이 教育目標에 対한 特別한 独立된 取扱을 하고 있지 않으나 그것들의 立案趣旨部分에서

① 北傀의 間接侵略의 可能性

② 北傀의 策動等에 対한 対備를 論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長期綜合教育計劃案"의 記述 一部에는 教育目標로 看做될 수도 있는 表現으로 「現地生活에 成功的으로 適応할 수 있는 方向으로 教育한다」라고 記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事実 文教部가 1957年 以来 15年만에 처음으로 가졌던 去 1971年 12月 27日의 「在外僑胞教育審議委員会」 첫 会議에서 文教部 스스로가 이 「諮問機関」의 会議에 報告한 現況中에도 「政策上의 問題点」이라 하여 報告한 것이 였는데 이것의 하나가 教育目標의 二元性 問題였음을 発見할 수 있다.

現在까지 在日僑胞 教育에 対한 基本目標는 여러가지 表現으로 提示된바 있으나 그 共通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民族意識의 鼓吹
- 反共精神의 昻揚
- 現地 社会에서의 永住能力 培養
- 僑胞社会의 協同 団結

이 4가지를 다시 圧縮하여 두가지의 根源的이고 本質的인 要素로 要約한다면

(가) 祖国과 民族에의 帰属意識 啓発

(나) 日本社会에서의 定着性(永住性) 保護라는 相互 反撥되기 쉬운 「二元的 要素」로 構成되고 있음.

어떻던 在日僑胞教育에서의 教育基本目標에 内在된 이 二元性에 対하여 肯定하고 受容해야 하느냐 아니면 否定하고 排除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할 때의 理由가 무엇이냐, 또는 이 二元性으로 因하여 在日僑胞教育의 発展이 沮害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우선 分明하게 把握되고 認識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의 究明이 없이는 在日 僑胞 教育을 위한 文教政策은 非能率的인 試行錯誤를 反復하는 것에 끝치고 말 것이 分明하다.

美国의 教育学者 R.H.Bauernfeind教授도 그의 著書 "Goal Cerel and future develepment Achievement testing"에서 「지금의 美国教育의 混乱과 論争의 原因은 누구나가 理解하고 解釈할 수 있는 用語로 教育目標를 陳述하지 못한 事実에 起因한다」라고 指摘된바 있거니와 우리나라의 教育学者로서도 鄭範模教授는 B.S.Bloom의 編著 「教育目標分類学」의 번역서 序文에서 「어떤 관점에서는 教育에서의 모든 非効能은 教育目的 내지 教育目標에 관한 모호한 思考와 흐미한 認識에 起因한다고 할 수 있다. 教育目的이란 모든 教育的 努力의 出発点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教育目標의 意味를 위와 같이 吟味해 볼 때 政府가 在日僑胞教育에서의 教育基本目標를 法律로서 制定한 바가 없을 뿐더러 어떤 有権的인 해석으로서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못박아 闡明한 바도 없느니 만큼 在日僑胞教育의 目標는 혼란을 피할 길 없고

따라서 教育의 非效能을 면할길 없지 않았는가 라고 生覚되는 것이다.

中央教育研究所長 白賢基博士는 그의 著書 教育政策研究에서 「教育目標는 그 教育組織의 모든 成員間에 透徹하게 認識되고 脈脈히 貫流되는 것이라야 한다」라고 喝破하였거니와 将次 어느 때엔가는 반드시 法令으로서 制度되어야 하는 在日僑胞教育의 基本目標가 어떤 形態 어떤 内容의 것이 되던지間에 위에서 分析考察한 "教育目標의 二元性" 문제는 결코 度外視될 수 없는 기본적 문제로서 이것에 대한 깊은 思考와 正確한 認識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思考와 認識의 先行없이는 真正한 教育目標의 定立과 바람직한 在日僑胞 教育観의 確立은 期約되지 못할 것이며 在日僑胞教育組織의 全成員間에 透徹하게 認識되고 맥맥히 관철되는 教育基本目標는 찾아가질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教育目標의 二元性에 対한 明瞭하고 正確한 思考와 認識問題야 말로 在日僑胞教育을 위한 政策上 問題点中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b. 教育 投資의 效率性 問題

이미 앞에서 본바와 같이 在日僑胞教育을 위한 여러가지 文教施策들은 그 事業의 形態의 性格이 多様한 것처럼 그 事業計劃의 目標도 多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各国의 単位事業이 갖는 計劃目標들은 全体의 在日僑胞 教

育目標에 符合 帰着됨과 同時에 各個 事業의 計劃目標間에도 相互 関聯 補完의 密接한 関係가 調整確立되어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도 앞서 考察한 바 있다.

그런데 「政策的으로서의 意義를 갖기 위해서는 全体的 構造위에 国民教育을 推進할 政策을 樹立하고 貫徹한다는 基本的인 態度를 条件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教育内容의 重要 局面과 이들 局面間의 相互 関聯性을 明白히 하는 일이 곧 教育政策의 内容이라 할 수 있다」라는 観点을 取한다면 이미 考察한 바와 같은 것을 内容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僑胞教育에 있어서도 全体僑胞教育目標를 頂点으로 하는 全体的 構造 위에서 重要局面을 이루는 重要施策들로서 하나의 体系를 이루게 하는 일이 곧 在日僑胞教育을 위한 文教政策이 갖는 意義이며 그 内容이라고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施策間의 相互 関聯性과 全体 目標와의 調和된 関聯性 問題는 教育政策의 本質的 意義面에서만 아니라 政策의 実效性 原理에 비추어서도 重視되어야 할 것이다.

〈政策上의 問題点〉

(1) 現 況

(가) 1957年~71年間의 政府 投資는 北傀의 対朝総聯 그것의 6分의 1에도 未達

우리는 Fy72부터 비로소 年間 100万$線을 넘어섰으나 北傀는 63年度부터 200万$, 69年에는 300万$선을 넘어 섰다.

(나) 教育費 投資의 效率化를 期하는데 있어서는

① 在日民団組織의 有為한 教育的 組織力

② 長期的 教育計劃의 実践的 適用

③ 適正한 量 및 質의 人力 供給等이 必須的 条件이겠으나 現実情은 이를 許諾치 않는 形便에 있다.

(1) 問題点

(나) 教育費 投資의 絶対額 増幅은

o 政府의 豫算事情과 国会의 協調的 認識

o 教育基準目標의 定立되는 方向 等에 달려있는 問題임으로 文教部 단독의 힘만으로는 解決 充足되기 어려운 일면이 있다.

(다) 教育費 投資의 效率化를 기할 수 있는 前提条件인 3個事項에 있어서

o 民団組織力에 関한 問題는 挙政府的 水準에서 鋭意 追究 改善되어야 할 問題이며

o 長期的 教育計劃의 実践

o 適正한 量과 質의 人力 供給의 問題는 在日僑胞教育을 위한 投資의 絶対額 増幅이 要請되는 問題와 同質的인 問題性을 갖고 있는 것임.

以上과 같은 最近의 文教部 意思를 보더라도 이 教育投資의 效率性 問題는 매우 높은 比重의 政策的 問題性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C. 在日僑胞의 敎育自治能力 問題

敎育政策에서의 「実践性의 原理」에서만 아니라 民衆参与의 原理에서도 在日僑胞敎育을 위한 文敎政策은 充分히 考慮되어야 할 理由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敎育政策에서의 民衆参与의 原則이란 것은 民主主義의 当然한 結論이다 라는 生覚위에 설때 民主主義의 敵対的威脅勢力인 「朝総聯 共産主義교육과 地域社会를 같이 하면서 共存하게 마련인 在日僑胞敎育에 있어서 要請되는 重視点은 在日교포스스로의 意志와 힘에 의한 僑胞敎育의 実践이고 문제해결의 관건이며 또한 敎育目標에의 指向과 努力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考察했지만은 敎育組織의 특이한 社会的 国際的環境에서 行하여 지는 在日僑胞 敎育이 朝総聯 共産主義勢力의 似而非民族敎育을 超克함에 있어서 重要한 것은 敎育의 量的面의 比較나 敎育内容面에서의 検討만이 能事가 아니라 敎育을 運営하고 実践하는 民主主義的 制度의 確立과 그 方法의 講究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見地에서 反省과 検討를 要하고 敎育政策上의 問題를 重視 考慮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은 바로 在日僑胞의 敎育 自治能力 問題라고 하겠다

D. 僑胞敎育의 敎育外的인 沮害要因 問題

이미 前章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敎育政策속에 社会政策을 포함

하고 있고 社会政策속에 역시 教育政策을 포함하고 있어 社会政策을 実施하는 政治와 더불어 具体的이며 特殊한 教育行政이 推進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教育政策은 国家의 現在 및 将来의 文化와 国民의 幸福과 結付시켜 考慮되고 策定되어야 하는 社会政策임을 否認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아직도 그 伝統이 日浅하고 整備된 教育의 制度나 確立된 行政的 体制가 未尽한 在日僑胞教育에 있어서는 더욱 鮮明하게 直接的으로 適用되는 하나의 原理라고 하겠다.

위의 原理에 立脚한다면 在日僑胞教育을 위한 文教政策을 単純한 教育政策으로 生覚할 수 없으며 社会政策을 実施하는 政治와 더불어 具体的이고 特殊한 教育行政의 実施를 要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할 뿐 아니라 国家와 国民의 眼目에서 考慮되고 策定되는 하나의 社会政策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在日僑胞教育에서의 沮害要因을 教育 「外的인 것」 或은 教育以前의 것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또 봐야 한다는 結論으로 귀착된다.

위와 같은 관점은 「在日僑胞教育은 単純한 教育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共産洗脳教育 体制와의 対決이라는 形態의 思想戦争이고 또 한편으로는 日本의 同化政策이라는 無形의 圧力과의 対決이라는 外交的 国際政治的 課題를 안고 있는 教育」이라는 데서 한층 더 明瞭해 지는 것이다.

이 僑胞教育의 教育外的인 沮害要因문제가 教育 政策的인 問題

로 提起되어야 할 理由는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은 在日僑胞教育 自体가 안고 있는 복잡한 政治的 社会的 여건에 있으며 그 필요는 바람직하고 効果的인 文敎政策의 樹立을 듣고 또한 그것을 期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第五章 在日僑胞의 教育에 對한 育教奉仕者의 意見

第五章 在日僑胞 教育에 対한 現地 教育奉仕者들의 意見

第一節 調査研究의 現況

以上과 같은 問題点의 充足을 위해서는 現地 日本에서 実際로 教育現場에 臨하여 直接的으로 教育奉仕活動에 従事하고 있는 在日僑胞教育 実践者들이 이 政策的 問題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正確히 파악하는 일이 緊要하고도 苦生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教育이란 教育行政이나 教育研究에 依해 뒷받침 됨으로서 補完되고 改善, 発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만큼 教育実践者들의 所重한経験의 溶鉱炉에 넣었다가 빼낸 問題意識이야 말로 真実로 価値있고 保証받는 그것이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趣旨에서 調査研究는 在日僑胞教育에 관한 文献上의 諸般 資料와 観察되는 諸 現実的 事項에 対한 分析的 考察로서 얻어진 政策上 4가지 問題点에 대하여 現地 僑胞教育에 実践者들의 意見이 어떤 것인가를 調査하여 이들의 이問題에 대한 認識実態를 파악 하고자 하는 것이다.

本 調査의 対象으로는 前述한 바와 같이 在日僑胞教育関係의 行政担当者나 政策樹立 参与者는 対象外로 하고 実際로 教育活動에 従事하고 있는 教育実践者 全員으로 하였다.

그 理由는 ① 그 人員이 僅少할뿐 아니라 僑胞教育 部門에서의 有経験者가 殆無하고 ② 質問紙 內容에 対한 信頼性 있는 応答을 하기에 주저할 우려가 豫見되고 ③ 本調査에서 期待하는 在日僑胞教育 現場에서의 生生한 経験으로 뒷받침되는 意見이 얻어질 수 없다고 判断되었기 때문이다.

調査対象에 있어 "朝総聯"共産主義勢力의 支配下에 있는 僑胞의 教育機関은 全然 考慮밖의 것으로 取扱하였고 駐日公館의 指導下에 있는 民団系의 韓国 教育機関에 局限하였다.

〈対象人員 構成〉

総対象人員은 155名이며 그 構成은 다음과 같다.

가. 学校教育分野………67 명

但 在日韓国学校(東京, 大阪 및 京都의 3個 学校)에 在職하는 教師 全員

備考; 67名中 政府派遣 教師 10名

나. 社会教育分野………38 名

① 在日韓国教育文化센타 責任者 全員(21名)

備考; 21名中 政府派遣教師 17名

② 在日韓国人 基督教会 教役者 全員(22名)

③ 在日 "大韓民国居留民団"組織의 文教関係 部署担当者 20名

④ 各地 散在의 夜間 講習所(教育文化센타 支援下에 있는 夜間学園)의 講師 25名

〈質問紙 回収〉

위의 対象人員으로서 実施한 質問紙의 発付 및 回収状況은 다음 같다.

가. 全 体 対 象 人 員 ……… 155 名 (100 %)

나. 回収人員 (応 答 者) ……… 104 名 (67 %)

다. 無記入 返送된 질문지 ……… 6 通

라. 回収人員(応答者)의 内 訳

① 学校教育分野의 従事者……… 52 名

② 社会教育分野의 従事者……… 52 名

<応答한 対象者 内訳>

가. 応答者는 原則的으로 在日僑胞 出身의 教育奉仕者를 期待, 豫見한 것이나 総 104 名의 応答者 中 政府派遣者가 包含되었을 可能性은 위에서 分析한 대로 最大限 22.1 %의 比率인 23 名인 것으로 推算된다.

※ 이것은 質問紙 方法에 있어 応答者의 無記名 応答 方式을 取했기 때문인 것이다.

나. 学校教育과 社会教育의 分野別로 본 応答者 数는 위에서 밝힌대로 52 名씩 同数이다.

다. 応答者의 年令 分布는

20 代……… 10 名　　30 代……… 18 名

40 代……… 47 名　　50 代……… 28 名

60 代……… 1 名　　計 ……… 104 名 (100 %)

라. 応答者의 教職 또는 教育奉仕活動의 経験 年限別 分布는

3 年以下…… 16 名　　3 年～5 年……… 18 名

5 年～ 10 年……… 49 名　　　10 年以上……… 2 1 名

計……………………… 1 0 4 名 (100 %)

마. 社会教育分野의 応答者 52 名의 所属 機関別 内訳은 다음과 같다.

① 在日韓国教育文化센터　　　　1 3 名

② "民団"組織의 文教関係部署담당자　　　5 名

③ 韓国人 基督教会 또는 仏教寺院　　　1 2 名

④ 夜間 韓国学園 (강습소)　　　2 2 名

以上과 같은 応答者의 内訳은 教育活動의 分野別과 経験年限別 年齢別 또는 社会教育分野에서의 所属機関의 類型別로 볼때 大体的으로 偏在 傾向이 적은 分布로서 調査者가 期待한 바의 信頼性 있는 分布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고 純粋한 在日僑胞 出身者들의 意見 表示 可能의 比重은 最下限線으로 잡더라도 79.9 %에 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第二節　在日僑胞教育의　政策的　問題에 対한　反応

이　調査研究에서　処理된　資料에　立脚하여　이미　提示된　4가지 政策的　問題別로　応答者의　反応을　記述하고　앞에서　밝힌　本　研究의　領域과　限界内에서　그　結果를　記述하려고　한다.

1. 在日僑胞教育에서의　教育目標의　二元性　問題

〈前　提　事　項〉

質問紙에서의　問題提示에　있어　在日僑胞에서의　「教育目標의　二元性」을

a. 在日僑胞로　하여금　民族的　自覚과　矜持　그리고　国民的인　意識과　愛国精神을　갖게　하고

b. 同時에　日本国　領土内에서　安定된　生活을　営為할　수　있는 永住能力을　培養하게　한다.

로　記述하였음으로　다음　表〈26〉, 表〈27〉, 表〈28〉　및　表〈29〉에서　使用되는　記録　a,　및　b는　「教育目標의　二元性」을 表記하기　위하여　위에서　使用된　a　및　b와　同一한　意味를　가진 것으로　前提한다.

a. 教育目標의　二元性에　対한　受容態度

現地　僑胞教育　実践者들의　「教育目標의　二元性」問題에　対한　受容　態度를　보면　다음　表〈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学校教育従

事者와 社会教育従事者 間의 意見差는 거의 없으며 肯定이 81.8%, 否定이 18.2%로서 肯定的인 傾向이 현저한 것을 알 수 있다.

肯定의 理由에 있어서 「a, b両項이 모두 同一比重으로 重要하므로」가 30.8%로 가장 많으나 「目標 b가 앞서지만 a는 度外視할 수 없다」와 「a가 重要하나 b도 度外視할 수 없다」가 各各 23.1%와 27.9%로 나타나 있어 提示된 세가지 理由 選択에 큰 差가 보이지 않는다.

〈表 26〉 在日僑胞教育에서의 "目標의 二元性"에 対한 受容態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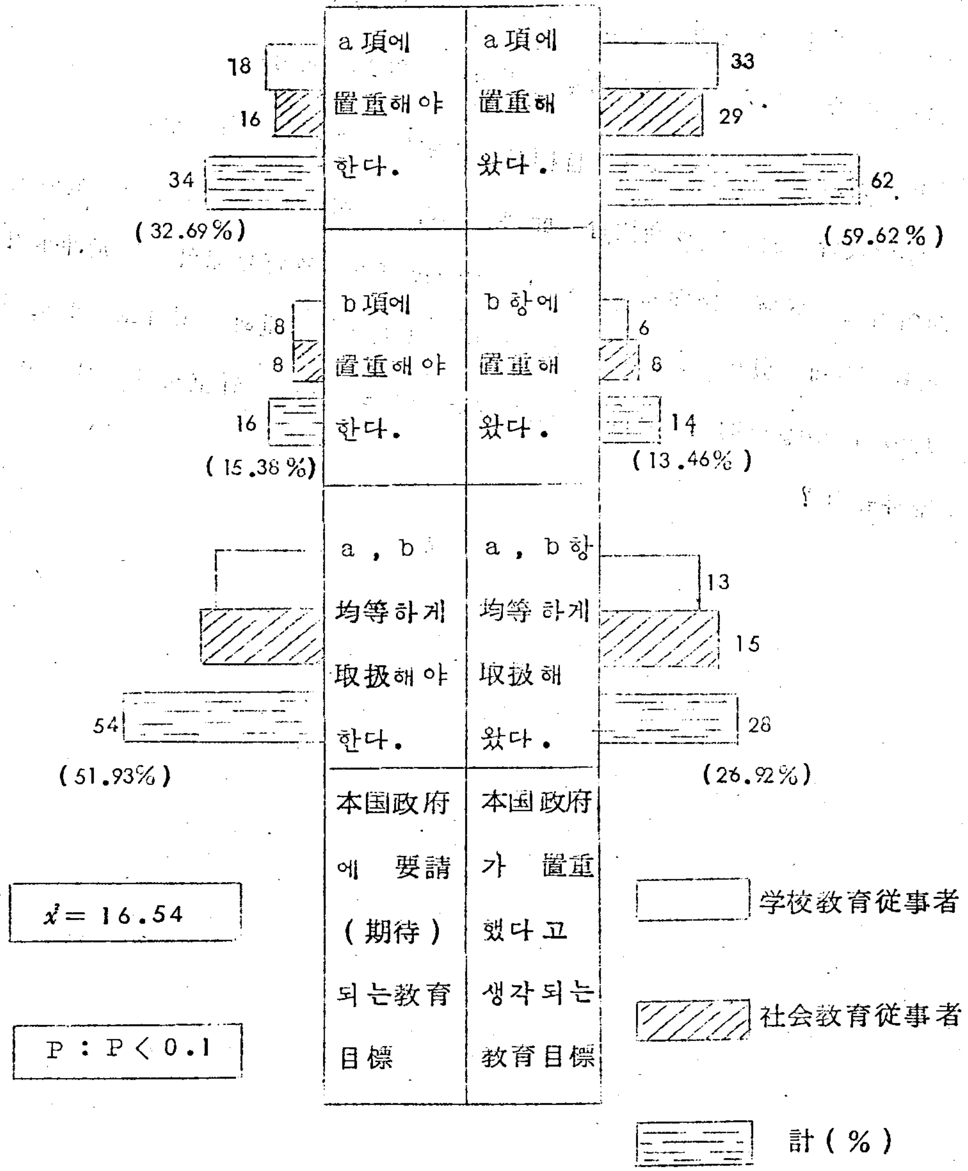
態度 / 理由 / 集団区分	肯定(賛)의 理由				否定(反)의 理由				総計
	A 教育目標 a, b양항이 모두 同一比重으로 重要하므로	B 目標b가 앞서지만 目標a도 度外視할수 없으므로	C 目標a가 重要하나 b도 度外視할수 없으니까	計	A 目標b는 自然達成되므로 A가 重要하니까	B 異質的인 a, b 양목표의 同時追求는 不可	C 教育目標는 b項에만 있으니까	計	
学校教育従事者	16	10	17	43	4	2	3	9	52
社会教育従事者	16	14	12	42	4	3	3	10	52
計	32	24	29	85	8	5	8	19	104
(%)	(30.8)	(23.1)	(27.9)	(81.8)	(7.7)	(4.8)	(5.7)	(18.2)	(100)

否定의 경우 全 応答者中 가장 적은 位置를 차지하는 「異質的인 a, b 両目標의 同時追求는 不可」라는 理由 選択者의 意図는 「目標의 二元性」이 갖는 実践上의 難関에 대한 憂慮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a만이 或은 b만이 教育目標라고 보는 極端的인 意見은 各各 7.7와 5.7%를 占하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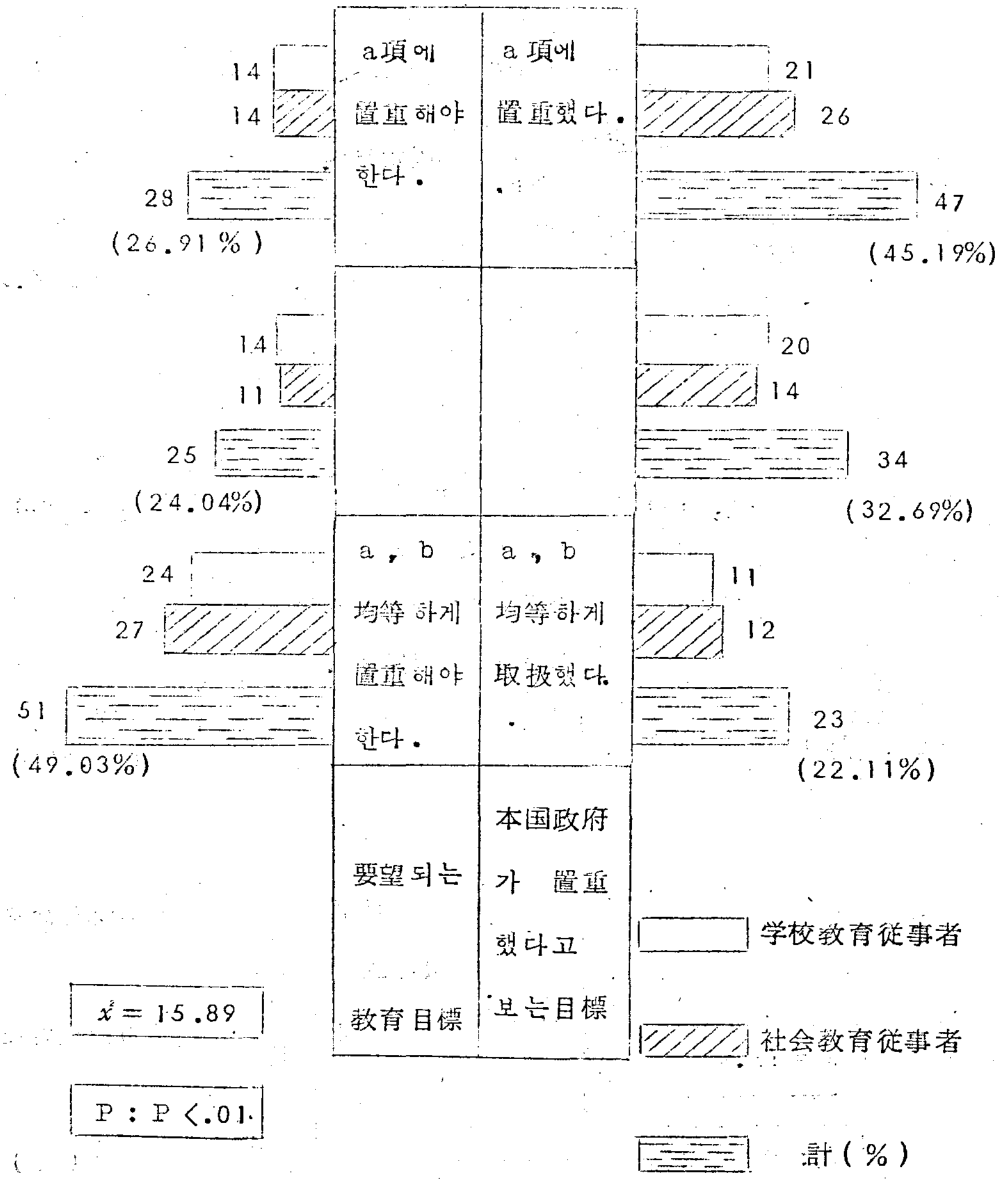
b. 実践的 意見에서의 目標와 希望的 意見에서의 目標

学校教育 面과 社会教育 面과 그리고 이 둘을 併合한 全般的인 面이라는 3個 側面에 있어서 本国政府가 教育目標의 二元性에서의 a와 b에 있어 比較的으로 어느 쪽으로 置重해 왔다고 보는가. (real aspect), 그리고 応答者는 어느 쪽에 置重해야 한다고 要望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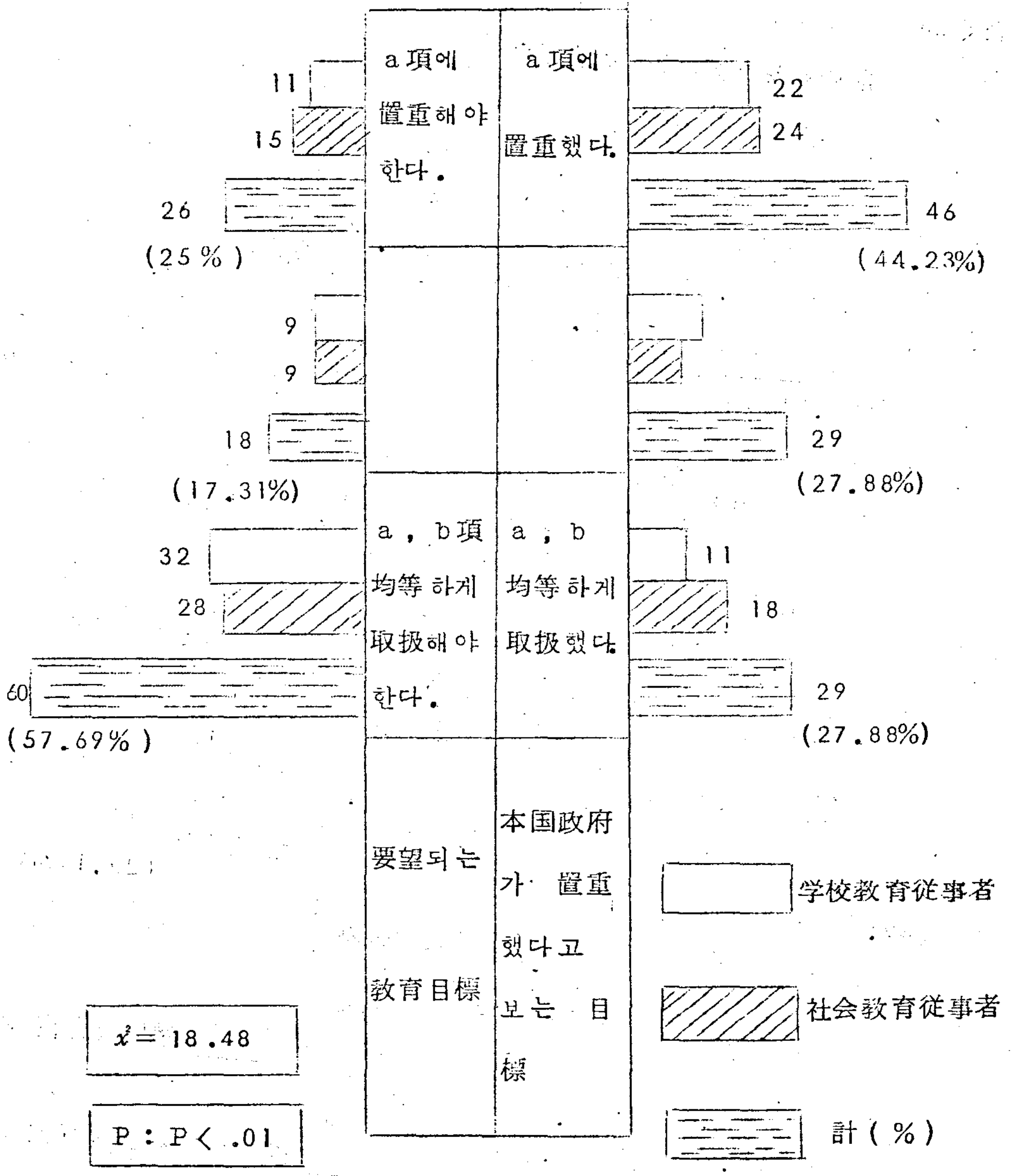
表＜27＞ 学校教育面에서 본 本国政府의 在日僑胞教育目標 및 要望＜期待＞하는 教育目標



表＜28＞社会教育面에서 본 本国政府의 在日僑胞教育目標 및 期待＜要望＞하는 教育目標



表〈29〉 全般的인 面에서 본 本国政府의 在日僑胞教育目標
및 要望〈期待〉하는 教育目標



(edeal aspect) 의 2個 質問을 学校教育分野의 従事者와 社会教育分野의 従事者에게 보냈는 바 그 結果는 「学校教育의 面」이 表〈27〉; 社会教育의 面」이 表〈28〉 그리고 「全般的인 面」이 表〈29〉와 같이 나타났다.

〈첫째〉 応答者의 集団別 意見 差는 僅少하다. 즉 学校教育 従事者건 社会教育 従事者건 答 内容別로 거의 同一한 数勢를 보이고 있다.

〈둘째〉 政府가 置重했다고 보는 実際的인 意見에서는 「a 項에 置重했다」가 学校教育面에서 59.62%로 最上位일 뿐 아니라 社会教育面에서 45.19%, 全般的 面에서는 44.23%를 차지하여 各各 最上位를 占하고 있다.

「b項에 置重했다」는 学校教育面에서는 最下位인 13.46%를 社会教育面에서는 中間位인 32.69%를 그리고 全般的 面에서는 「a, b 均等하게 取扱했다」와 同一한 数勢로서 27.88%이다.

「均等하게 取扱했다」는 学校教育面에서 26.92%로 中間位이지만 社会教育面에서는 最下位로 22.01%, 全般的인 面에서의 「b 項에 置重했다」와 同一하게 27.88%로 下位이다.

〈세째〉 応答者의 希望 乃至는 要望을 表示하는 「希望的 意見」에 있어서는 「a 項에 置重해야 한다」가 学校教育面에서는 32.69%로 中間位, 社会教育面에서도 亦是 中間位로 26.91%, 全般的인 面에서도 中間位인 25%를 나타내고 있고 「b 項에 置重해야 한다」는 学校教育, 社会教育 및 全般的인 各面에서 모두 最下位로서

15.38 %, 24.04 % 및 17.31 %를 차지하고 있다.

「a, b 均等하게 取扱해야 한다」는 "学校教育" "社会教育" 및 "全般的"의 3個面을 통털어 모두 最上位로서 51.93 %, 49.03 %, 57.69 %를 各各 차지하고 있다.

<넷째> 応答者가 政府가 置重했다고 보는 実際的 意見의 立場으로는 "a項의 教育目標"가 3個面을 通하여 最上位이지만 「置重해야 한다」고 바라는 希望的 意見의 立場으로는 "a項과 b項의 教育目標가 均等하게 取扱되어야 한다."는 것이 亦是 3個面을 通하여 最上位이어서 두立場 間에는 현저한 의견차가 나타났다.

이 教育目標의 二元性에 対한 学校教育면, 社会教育 그리고 全般的 面에서의 実際的 意見(real aspect)과 希望的 意見(ideal aspect)의 差異를 検証한 結果 세面에 共히 意義있는 差(P<.01)로서 밝혀졌다.

2. 教育費 投資의 効率性 問題

政府가 実施하고 있는 在日僑胞教育施策들의 事業 型態를 여섯가지로 類型化하여 教育 投資의 効率性 問題에 관련되는 네가지 質問에 対하여 그 応答을 얻었다.

事前提示된 事業 類型은 다음과 같다.

A. 学校教育으로서 現地(日本)에서 実施되는 것.

B. 学校教育으로서 本国에 招請하여 実施되는 것

C. 社会教育(非公式 学校教育)이면서 現地에서 実施되는 것.

D. 社会教育(非公式 学校教育)이면서 本国에 招請하여 実施되는 것.

E. "其他"의 教育事業으로서 現地(日本)에서 実施되는 것.

F. "其他"이면서 本国에서 実施되는 것 등이며 質問紙에는 各各 1個式 事業例를 附記해 두었다.

a. 類型別 教育事業에 対한 優先順位

提示된 類型別 6個事業에 対한 「政府가 取했다고 보는」 実際的 意見上의 優先順位와 「応答者가 期待하는」 希望的 意見上의 優先順位를 各各 물은 2個의 질문에 対한 応答을 하나로 묶어 해석하면 表 < 30 >과 같다.

〈첫째〉 集団別로의 意見差는 僅少하여 의의가 発見되지 않는다.

〈둘째〉 政府가 取했다고 보는 実際的 意見에서의 優先順位 第1位 C의 現地 実施의 社会教育으로서 23.8%의 比重을 차지하며 A의 現在実施의 学校教育은 第2位로서 21.8%의 比重을 차지한데 比하여 取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希望的 意見에서의 우선순위 第1位는 A의 現地 実施 学校教育으로서 24.7%이고, C의 現地 実施의 社会教育은 20.5%를 차지하여 第2位이므로 両 立場에서의 意見差에 依하여 우선순위 第1位 및 第2位가 僅少한 比重差이기는 하나 서로 맞바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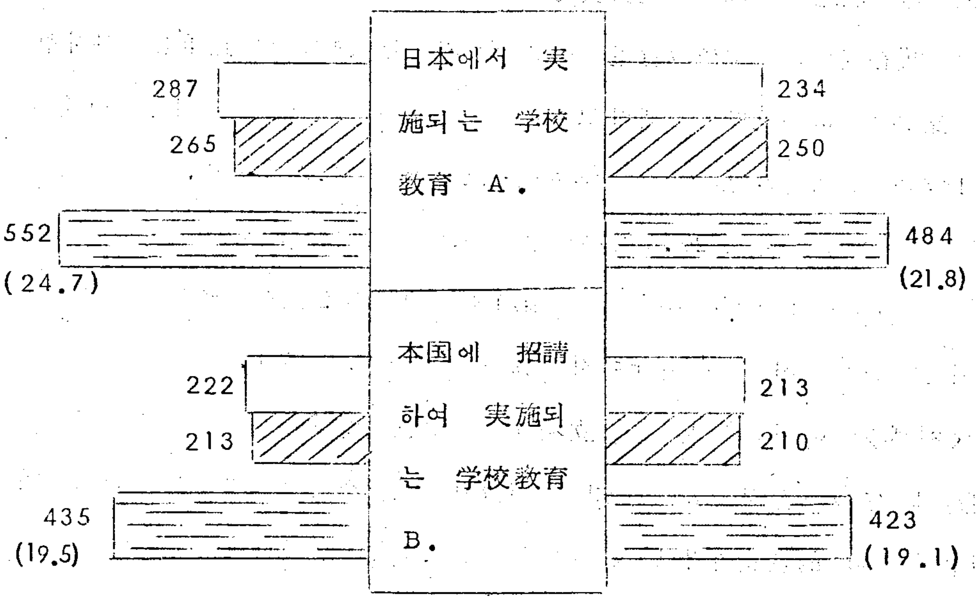
〈세째〉 이와 같은 두 立場間의 順位 맞바꾸임은 B의 本国 招請의 学校教育과 D의 本国 招請의 社会教育의 경우도 같은 様相인데 実際的意見에서의 第3位는 20.4%를 차지하는 D이고 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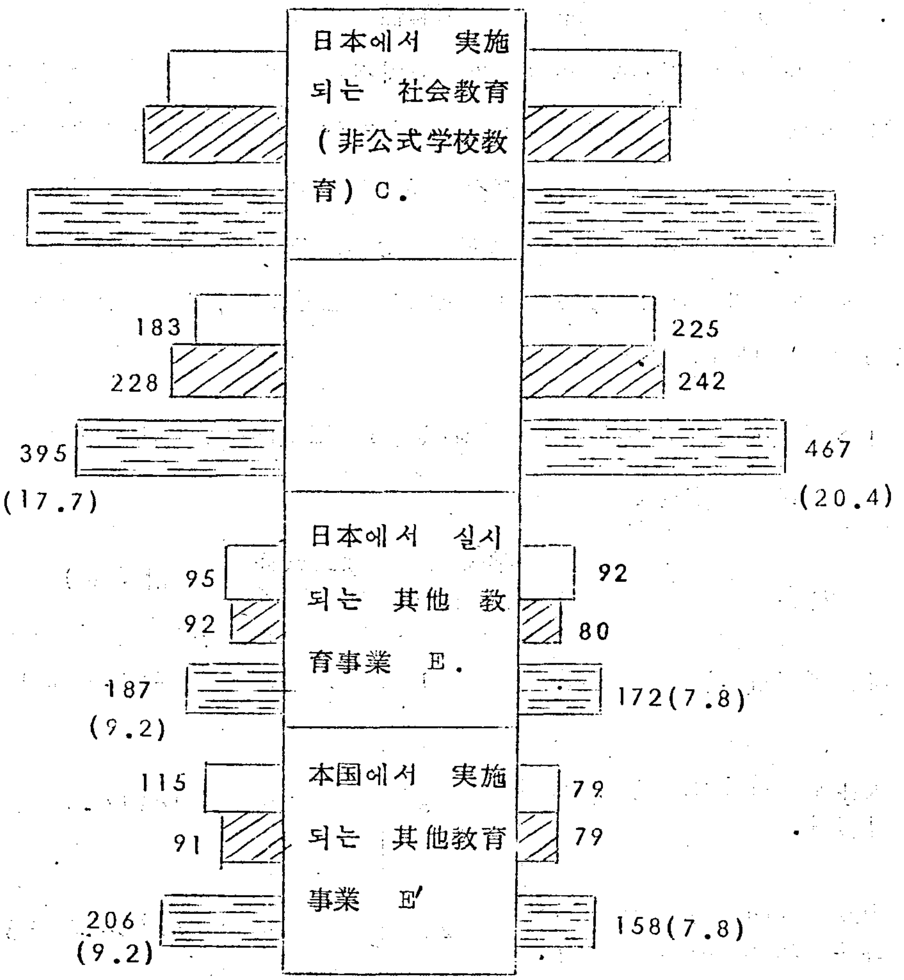
望的意見에서의 第3位는 19.5%를 차지하는 B이며 亦是 그 比重差는 僅少하다.

〈넷째〉 全般的으로 볼때 取했다고 본다의 実際的 意見으로는 類型別 僑胞教育 事業의 優先順位가 C, A, D, B, E, E順으로 나타났고 取했으면 좋겠다의 希望的 意見으로는 A, C, B, D, E, E順으로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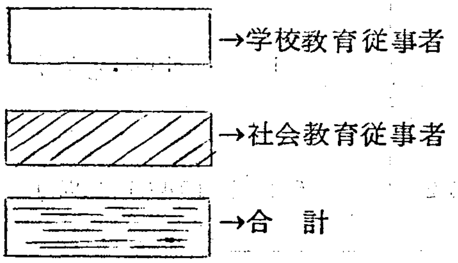
〈다섯째〉 두 입장 즉 取했다고 보는 立場과 取했으면 좋겠다의 立場에서의 意見差는 앞에서 본바와 같은 優先順位의 位置 바뀜은 있어도 該当 事項을 相互間의 比重差가 僅少한 탓으로 結果的으로 큰 意義는 없음이 밝혀 졌다.

〈表 30〉類型別 僑胞教育事業에 있어 本国政府가 取한 것으로 보는 優先順位 및 僑胞가 願하는 優先順位





※ 集団別 数値는 点数化한 結果임.



x^2 : 19.73

P : N.S

10 < P < 0.5

b. 教育施策間의 效果的인 相互関聯性

教育目標를 効果的으로 達成하기 위해서는 前項의 各 類型別 諸 教育施策間에 密接한 相互 聯関性이 있어야 하며 그 効果가 検討, 評価되는 가운데서 推進이 있어야 할것이라는 設問者의 意見을 받아드려 그 間의 政府施策의 実際는 어느 程度로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고 보는가 하는 응답자의 実際的 意見을 調査한 結果는 表 (31)로서 나타난다.

〈表 31〉 教育의 実効를 위한 僑胞教育 施策間의 相互関聯性에 대한 満足度

区分 / 答 内容	学校教育 従事者	社会教育 従事者	計(%)
① 매우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1	3	4(3.8 %)
② 大体로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8	10	18(17.3%)
③ 相互 関聯性은 고려된듯 하나 그 이상의 것은 없다.	29	28	57(54.8%)
④ 事業別 各個 前進이었을 뿐이다.	14	10	24(23.7%)
⑤ 全然 関聯性이 없는 各個 前進뿐이다.		1	1(0.9%)
計	52	52	104(100%)

大体的으로 보아 諸施策間에 相互関聯性은 있었다고 認定하나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라고 보며 施策 効果의 検討와 評価에 対하여는 否定的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解析된다.

C. 全体教育目標와 諸 施策 間의 調和

諸 施策의 明確한 計劃目標와 그 段階的인 推進計劃의 마련 및 全体 僑胞教育 目標와 諸 施策間의 調和된 関聯性의 維持에 대한 満足度를 質問한데 대하여 応答者의 実際的 意見은 表 〈32〉와 같이 밝혀 졌다.

	学校教育従事者	社会教育従事者	計(%)
① 매우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2	2(1.9%)
② 大体로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6	14	20(19.2%)
③ 施策別 計劃目標는 있은듯 하나 全体目標와의 調和된 관련성 없음.	29	22	51(49.0%)
④ 大体로 各個 前進이었을뿐·全体的 調和 없음.	10	13	23(22.7%)
⑤ 全体的으로 各個 前進이었을 뿐이다.	7	1	8(7.7%)
	52	52	104(100%)

最上級 肯定은 1.9%이고 最上級 否定이 7.7%이며 満足하다고 보는 肯定의 편이 위와 合해서 3.8%인데 比하여 否定的으로 기울어진 意見은 30.4%를 보여 주고 있다.

中間位인 49.0%가 施策別 教育目標의 마련은 認定하면서도 全体的으로 調和된 関聯性의 維持는 否定的으로 対하고 있는 것이다.

全体的으로 보아 諸 施策의 計劃性 있는 推進에 対하여 懐疑的이며 全体 目標와 施策間의 調和와 関聯性의 維持에 対하여도 否定的인 観測 意見으로 기울어져 있음이 発見된다.

3. 在日 僑胞의 教育自治 能力 問題

在日 僑胞教育을 위하여 政府가 実施하는 諸 施策을 財政的 支援과 行政的 指導로 便宜上 양분하여 概念 設定하고 이를 学校教育의 面과 社会 教育의(非公式 学校 教育)面에 適用하여 政府가 맡아야 할 役割과 僑胞 自身의 自主的 担当과를 相関지어 5段階로 等位区分을 附하여 応答者의 希望的 意見을 求했던바 그 結果는 〈表 23〉로서 나타난다.

〈첫째〉 完全 依存은 学校教育面과 社会教育面에서 두面 共히 最下位를 보이고 있으며 学校教育面에서의 完全依存이 11.54%로 社会教育面에서의 8.65%보다 若干 上廻하고 있다.

〈둘째〉 完全自立은 学校面 및 社会面 共히 第3位를 차지하여 各各 14.42%와 18.27%를 나타내고 있다.

特異한 点은 完全自立에 対한 学校教育 従事者들과 社会教育

從事者들 間의 差異인데 前者가 後者에 比해 훨씬 높은 反応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前者는 学校面에서 12.5%, 社会面에서 14.42%를 차지하고 있어 이것을 後者와 合算하면 全体 意見上의 地位를 決定짓는 主勢를 이루게 한다.

〈세째〉 最大 頻度는 学校面에서는 政府와 僑胞가 半半式 負担함이 좋다는 意見이 第1位로서 39.43%를 나타내고 있고 社会面에서는 이보다 政府에의 依存度가 높은 즉 「教育費 負担의 面에서는 半程度 人力 支援의 面에서는 全部를 政府에 依存」하는 것으로서 33.65%를 차지하고 있어 第1位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넷째〉 全体的으로 보아 政府의 指導, 支援에 対한 期待는 完全依存과 完全自立이라는 両極間에서 中間的인 乃至는 両者를 折衝한 状態를 択하고 있음이 顕著하다.

<表 33> 在日僑胞教育을 爲한 政府役割에의 期待度

学校教育 從事者	社會教育 從事者	計 (%)	学校教育面	社會教育面	学校教育 從事者	社會教育 從事者	計 (%)
3	9	12 (11.54)	学校의 財政面 学事行政面에서 全的으로 本國政府가 責任져주는 것이 좋겠다. (完全依存)	教育経費面, 人力支援面에서 全的으로 本國政府가 責任져주는 것이 좋다. (完全依存)	2	7	9 (8.65)
7	8	15 (14.42)	本國政府가 財政面에서 全部 学事行政面에서 半程度 責任져 줌이 좋겠다.	本國政府가 教育経費面에서는 全部 人力 支援면에서는 半程度 책임지는 것이 좋겠다.	8	4	12 (8.65)

10	11	21 (20.19)	財政面에서는 半程度 学事行政面에서 全部 責任져주는 것이 좋겠다.	教育経費面에서는 半程度 人力支援面에서는 全部 責任져 줌이 좋겠다.	11	24	35 (33.65)
19	22	41 (39.43)	財政面과 学事行政面 共히 半程度式 책임지는 것이 좋겠다.	教育経費面, 人力支援 共히 半程度式 책임지는것이 좋다.	16	13	29 (27.89)
13 (12.5)	2	15 (14.42)	本國政府의 関与없이 僑胞 스스로 遂行하는 것이옳다. (完全自立)	本國政府의 関与없이 僑胞 스스로가 遂行하는 것이옳다. (完全自立)	15 (14.42)	4	19 (18.27)
52	52	104 (100)			52	52	104 (100)

4. 僑胞教育의 教育外的 沮害要因問題

在日僑胞教育의 不振에 対한 理由와 原因으로서 列挙 提示한 11個項 및 応答者의 自由応答을 許容한 2個項 計 13個項에서 5位까지의 順位로 選択된 理由 事項들의 等位는 〈表34〉로서 알 수 있는 것이다.

〈表34〉 在日僑胞教育의 不振에 対한 理由 및 原因

理由事項 ＼ 順位	1	2	3	4	5	計	等位
①本国政府의 有限한 在日僑胞教育費이지만 効率的으로 使用되지 못했다.	35	52	15	10	6	118	5
②在日僑胞学父母의 子女教育問題에 対한 理解不足과 努力不足	110	64	36	28	7	245	2
③日本駐在 本国政府官吏들이 僑胞教育을 最重要視하지 않았다.	20	20	27	34	7	108	6
④民団組織의 教育事業에 対한 等閑과 教育事業을 為한 組織能力의 欠乏	175	52	42	24	10	303	1
⑤本国政府의 在日僑胞教育을 為한 教育費投資의 不足	5	28	19	4	8	63	10

順位 / 理由事項	1	2	3	4	5	計	等位
⑥朝總聯의 似而非 民族教育의 強勢와 北傀共產集団의 財政的 支援의 加勢	15	20	15	8	11	69	9
⑦民団系僑胞 有力有産階層 人士들의 僑胞教育에 対한 無誠意	25	66	51	28	17	189	3
⑻本国政府와 国民이 本国內의 일과 같이 在日僑胞 将来問題를 同等視하지 않고 있다.	25	64	24	12	3	128	4
⑼在日僑胞의 民族的 劣等意識과 民族教育에 対한 僑胞社會의 外面	20	24	27	28	6	105	7
⑽日本国政府 및 地方行政当局의 在日僑胞子女教育問題에 対한 無関心 또는 差別과 冷待		4	12	8	9	33	11
⑾"将次 日本化되게 되므로" 라는 분위기 위에 在日韓国							

理由事項 ＼ 順位	1	2	3	4	5	計	等位
人으로서의 意識 및 民族的 自覚의 必要性이 同胞社會에 망각되어 있다.	35	24	15	6	5	85	8
⑫応答者의 自由応答 및 選択 記入 (5 件中 2 件은 第 1 位, 1 件은 第 5 位로 選択)	10				1	11	12
⑬応答者의 自由応答 및 選択 記入 (2 件中, 1 件은 第 1 位, 1 件은 第 5 位로 選択)	5				1	6	13

※ 提示된 数値는 点数化한 結果임.

〈 a 〉 等位 第 1 의 理由는 在日僑胞 自身에게 向해진 것으로서 社會的, 集団的 責任을 認定하는 것으로 解釈된다.

〈 b 〉 等位 第 2 의 理由 亦是 僑胞自身에게 原因을 두는 것으로서 僑胞 " 学父母層 " 이라고 하는 莫然하지만 僑胞 成人이면 누구나 그 成員일 수 있는 対象에게 責任을 묻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応答者 自身의 反省을 뜻하는 것으로 解釈된다.

〈 c 〉 等位 第 3 의 理由도 또한 僑胞自身에게 向해진 것이나 社會, 經済的 階層意識이 作用된 것으로 보이는 바 教育發展의 現実的 動力이 되어 줄 것으로 期待되는 社會, 經済的 最上位層이

無誠意한데 対하여 責任追窮으로 해석된다.

〈d〉 等位 第4의 理由는 在日僑胞의 立場에서 外部的 対象에게 向해진 것으로서 本国의 政府와 国民이 在日僑胞에 対한 一体感을 欠하고 있다고 보는데서 나오는 意見이다.

〈e〉 等位 第5의 理由는 第4의 것과 마찬가지로 外部的 対象에게 向해진 것이나 本国政府의 보다 実効性있는 僑胞教育政策과 그 施策을 바라고 있다는 것의 한 表現으로 解釈된다. 더 많은 教育費 投資를 바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은 等位 第10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f〉 自由応答欄에 있어 計 5件의 自由応答中 2件이 提示理由外의 것을 記入한 것이었고 残餘 3件은 表現만 달리하였을 뿐 內容은 提示理由中에 包含되는 것들이었다.

前者 2件中 1件은 在日僑胞 社會의 団結, 協同이 不足함을 第1位로 他1件은 在日韓国学校의 日本国內에서의 法的 資格 未備를 第5位로 選択한 것이었다.

〈g〉 全般的으로 볼 때; 僑胞教育의 發展을 沮害하는 教育外的 要因이라고 할 11個項에 達하는 教育不振의 理由(原因)中, 僑胞自身에게 向해질 性質의 것이 5個項이고 外部的인 것이 6個項이었으며, 後者 6個項中 4個項이 本国의 政府 또는 国民에 関係되는 것들이고 1個項이 日本国 또는 日本国民에 残餘 1個項이 "朝總聯" 共産勢力에 関係되는 것이었는 바, 위의 해석과 같은 結果로 나타났음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① 在日僑胞 教育奉仕者들인 応答者들의 民族意識과 倫理意識이 強하며,

② 僑胞의 問題를 僑胞 自身의 責任으로 反省하며,

③ 本国과의 紐帯意識을 가지고서 教育不振의 理由나 原因을 判断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説明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第六章 結　　論

第六章 結 論

在日僑胞의 教育에 関한 基本目標를 定立, 確定짓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愼重에 愼重을 기해야 할 問題인 것이다.

그것은 在日僑胞 個個人의 幸福한 将来를 約束하고 安定된 "現在"를 保障하며 그리고 피와 눈물로 얼룩진 辱된 過去를 씻어주고 補償해 주는 精神의 指標를, 마음의 支柱를 찾아 갖게 해주는 일과 마찬가지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그는 在日僑胞의 어머니 나라 大韓民國의 國威를 宣揚하고 國家的 利益에 도움 일, 그리고 그들의 祖國에 땅이 自由와 民主主義로 統一되는 일에 이어지는 것이라야 하겠기 때문이다.

그것은 즉 在日僑胞의 教育에 関한 基本目標를 定立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簡単, 明瞭한 것으로 表現할 수도 或은 어떤 한 側面, 한 立場에서만 내려지는 決断으로 処理될 수도 없는 일이다.

國際法上의 知識만으로 政治的 識見만으로, 或은 教育学的 理論만으로, 그리고 文字로 써서 発表하는 것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요 法律로 制定했다고 해서 끝나는 일도 아닐 것이다.

그것은 즉 在日僑胞의 教育에 関한 基本目標는 感情을 排除한 理性만의 所産일 수도 或은 理性을 外面한 感情만의 結果일 수도 없을 것이며 当為만을 強調하고 必然을 忘却한 것이 될 수도 또

는 必然에만 맡기고 当為를 저버린 것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在日僑胞의 "僑"字가 뜻하는 "나그네"처럼 영영 자리 잡히지 않는 固定되지 않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生覚해 보고자 하는 것은, 在日僑胞는, 지금 現在로는 또 未来의 얼마동안은 우리 韓國民族의 그, 우리 속의 一員임에 틀림없으며 우리와 따뜻한 한 핏줄기를 타고난 同胞임에 틀림 없다는 지극히 平凡한 事実에 对해서이다.

따지고 따져서 追求할때, 在日僑胞의 教育에 관한 基本目標의 定立 確定이 至難의 일이라고 함은 在日僑胞의 将来運命, 即 在日僑胞가 우리의 同胞일 수 있는 우리의 國民일 수 있는 위에서의 未来의 얼마 동안이라는, 그 얼마동안을 問題 삼으면서 同時에 教育은 恒久性과 永続性이라는 属性을 지닌것이라고 前提하는데서 惹起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在日僑胞의 教育에 関한 基本目標를 定立함에 있어서는 未来 永劫에 時間은 留保할 수 밖에 없는 일이고 위에서의 未来의 얼마동안을 가까운 将来의 어느 時期까지로 生覚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다.

이 가까운 장래의 어느 時期란 具体的으로 어떤 時点을 말함인가?

이 時点은 自由民主主義에 依한 南北統一이 実現되는 때라고 말하고 싶다. 그때까지는, 그 때까지 만이라도, 在日僑胞는 韓國民族의 成員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韓國 國民으로서의 主体意識이 啓

発되어야 하고, 在日僑胞의 한 사람이라도 더 共産化 威脅에서 救出保護되어야 하며, 祖國의 統一을 念願하는 在日僑胞 社会의 団結과 相扶相助가 価値있는 것으로 促求되어야 한다.

國土統一을 이룩하는 그때에 가서 在日僑胞의 未来 永劫에 걸친 生의 向有方式(永住帰化이건 永住帰國이건 간에)을 自由 送択으로 決定지어도 늦을 것은 없는 일이고, 그때에 이르러 祖國이 在日僑胞의 教育問題에서 손을 뗀다 하더라도 "棄民政策"이라는 非難은 받지 않을 것이다.

在日僑胞의 教育問題는 그때 南北統一이 이룩된 後에 가서 그 目標와 方針과 実践과 더불어 無로 돌려지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 때까지는 在日僑胞로 하여금 本國의 政府와 國民으로부터 "疎外感"을 받지 않게 하고 本國과의 "一体感"속에서 安定되고 安全한 日本 居住의 生活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意義와 価値를 두는 것이라야 할 것이고, 이것이 現在 時点에서의 在日僑胞의 教育에 관한 基本目標定立에서 考慮하여야 할 主眼点임을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이다.